朝鮮日報 夕刊

「잘」獨逸移管遂完了

飜揚하는獨逸國旗에 全市民의感激은高潮

히總統,飛機로來到

【電通잘부뤽켄一日發】今日午前聯盟잘委員長 아로이지男과 獨逸政府代表 플릭氏와의 間에 잘의獨逸移管이 完了되자 直時全市政委員會의屋上에서 聯盟旗가引下되고 此에代하야 獨逸國旗가揭揚되엿는데 廳舍附近에 殺到한數萬市民은 飜揚하는 獨逸國旗를 仰하고 感激하야 一齊히 獨逸國歌를 高唱하고 잘의 獨逸復歸에 모도歡呼하엿다 各戶에도一齊히 獨逸國旗를 揭하고 敎會는 鐘을울니며 工場은 싸이렌을울녀 祝意를表하야 全市는感激에 넘치는情景에 싸여잇다 (寫眞은히氏)

【電通잘부뤽켄一日發】今日聯盟잘委員會長 아로이지男과 獨逸政府代表플릭氏와의間에 行한 잘의 獨逸移管引繼는 于先兩氏 各其移管에關한 正式議定書에 調印한後 相互인사를 交하엿슬뿐으로 極히 簡單하게 終了되엿다 다음에 플릭氏는 보의켈氏를 正式으로 잘에잇서 獨逸政府代表및 나치스 指揮者로 任命하엿다

【電通잘부뤽켄一日發】獨逸總統 히틀러氏는 잘歸屬이 完了된 一日五後一時二十分 飛行機로 伯林으로부터 意氣揚揚하게 當地에到着하야 市民의 熱熱한歡呼를바덧다

나치스旗下의「잘」首都잘부뤽켄

交附金問題로 安達總裁藏相訪問

【東京電話聯合】國民同盟安達總裁는 一日午前九時赤坂表町私邸에 高橋藏相을 訪問하고 이번에 我黨에서 政友會와 共同하야 地方財政補正公布金案을 提案하엿는데 現下地方財政의 窮狀은 緊急救濟할必要가 잇는것은 再論할必要가 업는 問題로 政府는 此際에 地方財政調整公布金制度에對하야 充分히 考慮하고 內閣審議會에서 審議한다고하엿는데 이問題는이미 議論의 餘地업슬만큼 必要切迫한 問題이므로 政府는 速히實施할것이다 고意見을 述하고 同案의必要所以를 力說한데 對하야 高橋藏相은 同案은 內閣審議會에 諮問하야 調查硏究하게되어잇스므로 그前에 이것을 實施할意思는 업다는 意를 答하야 安達總裁는 要求를 拒絶하엿스므로 安達總裁는 다시時局問題에對하야 懇談을 거듭하고 同九時半辭去하엿다

佛國下院 婦人參政權案可決

【電通巴里一日發】佛國下院은 一日婦人參政權法案에對하야 票決을 行한結果 四百五十三票對百二十四票의 大差로써 此를可決, 中央及地方議會를通하야 婦人에게 投票權을附與하기를 承認하고 右法案을 上院에 廻付하엿다

話題解說 婦人參政權

今日 外電은 佛國下院이 婦人參政權案을 可決하엿다 한다。婦人參政權은 이미 先進諸國이 거의 認定한것 인데 오죽佛國、日本만이 認定치안헛섯스므로 佛國이 마자 이것을 認定한다하면 日本만이 婦人參政權을 認定치 안는셈이다。

◇

婦人參政權은 婦人이 政治에 參與하는 權利를 말하는것인데 여긔는 積極的及消極的의 두가지 方面이잇다。積極的方面이라는것은 婦人이 議員될權利를 가지는것이오, 消極的方面이라는것은 選擧權만 가지는것이다。一般人에게 參政權을 要求하고, 또 婦人의 參政權을 認定하는 根據는 民主思想에서 出發한것이니 男女가 社會的으로 平等하니 政治的으로도 平等치안으면 안된다는 理由에서 出發한다。婦人參政權問題는 佛國革命以後 구오주女史가 斷然히 主張하엿스나 [illegible] 議會에 婦人參政權이 잇스면 參政權을 가질것이 잇다고 떠돌엇스나 實로 婦人에게 參政權을 認定하기는 一八九〇年 米國의 와이오밍州에서 婦人參政權을 認定한것이 嚆矢다。그後 米國은 一八九三年 콜로라도州에 一八九五年 유타

州에 一八九六年 아이다호州에 婦人參政權을 認定하고, 一般으로 婦人參政權을 認定하기는 一九二〇年 聯邦憲法을 改正하기까지 이르럿다。

◇

英國은 所謂 自治領 오스트랄리아에 新西蘭이 一八九三年 一八九四年 西濠洲가 一八九九年 濠洲聯邦이 一九〇二年의 順序요、英本國은 一九一八年까지는 自治區의 選擧權은 잇섯스나 一般的 參政權은 認定치 안햇섯다。

其他 歐洲諸國은 스칸디나비아 諸國이 가장 일럿서 芬蘭이 一九〇六年、諾威가 一九〇七年、丁抹이 一九一五年

그後 和蘭 (一九一七)、露西亞 (一九一八—一九一九)、獨逸 (一九一八—一九一九) 墺太利 (一九一八—一九二〇) 瑞典 (一九一九) 白耳義 (一九一九) 等에서 認定하고 체코슬로바키아 (一九二〇) 리투아니아 (一九二二) 에스토니아 (一九二〇) 라트비아 (一九二〇) 等이 婦人參政權을 認定하엿다。

◇

그러나 最近 獨裁政治가 擡頭하야 諸國은 社會主義의 意味에서 이것을 認定하고 獨逸은 國民社會主義의 意味에서 認定하고 其他의 獨裁國도 그러하야 婦人參政權問題는 그다지 떠들지 안케되엿다。

靜觀態度를離脫 米英兩國漸次動作

【華盛頓一日發聯合】日中兩國外交의常道化는 全世界注視의的이되여잇는데 오래동안 情勢의推移를 靜觀하여온 英米兩國政府는日中提携氣運의具體化에따라 漸次對策을講究하게된모양인데 英國大使린제氏는 一日突然國務省을 訪問하야 필립스長官代理와 懇談한것이라고 解釋된다 右는全然右對策을檢討한것이라고解釋된다

一、孔祥熙의政策遂行이容易하게되여 國際政局에及할影響이重大할것이다

라고 자못重大視하고잇다 그리고필립스 長官代理와린제大使와의會見에잇서 如何한對策을審議

日中提携에對해 嚴密히注意

필립스國務長官代理談

【華盛頓一日發聯合】필립스國務長官代理는 一日午後新聞記者團과의定例會見에잇서 英國大使린제氏와會談한結果를發表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日中兩國政府間에 最近자조政治經濟提携에對하야 協議되여잇는模樣인데 米國政府는特히 此에對하야 注意를 拂하고잇다 英國大使린제氏와도 一日午前에會見하고特히 英米兩國政府共通의利害關係를가진 諸問題에對하야約一時間意見을交換하엿다

所謂「共通의利害關係를가진 諸問題」는무엇인가 理는 何等言明치안햇스나日中兩國提携에對한 對策協議가잇슨것은 勿論이다

移植民會社助成 拓務省에서立案

近日中議會에提出乎

【電通東京電話】拓務省에서는海外移植民拓殖事業의 指導獎勵을 爲하야 積極的對策을樹立하기爲하야 일주부터委員會의調査硏究中이든바 그成案을어더來週初에 移植民會社助成에關한 豫算外國庫支辨에關한契約을 要하는件을 議會에提出키로되여 다음과가튼 具體的計畫을樹立하엿다

一、昭和十一年度南米에잇서移植民拓殖事業指導計畫에잇서 拓務書記官武田寬一氏를 現地에派遣함

一、現在의財團法人아마조니안産業硏究所를資本金一千萬圓의株式會社로하고 同硏究所가부러질政府로부터許可되어잇는百萬町步에亘하는 新地에年年二千八百名의 移民計畫을施行할것

一、右會社投資者에對하여는 拓務省으로부터 今後十個年、年六分의 助成金을交付할것

一、海外移住組合聯合會의現地에잇서서의 實情을視察하고그積極的振興方策을講究할것

駐米英國大使 米國務次官과密議

日中接近에對한 共同對策協議

九個國條約調印國과도相議

對日提携를企圖乎

【華盛頓一日發】駐米英國大使린제氏는 一日國務省에필립스次官을訪問하고 長時間에亘하야 會談하엿는데 兩氏는會談의內容에對하야 發表하기를避하고잇는데 最近日中接近에對한 英米兩國의共同對策에關하야 重要協議를 行한것이라고 確聞한다 中國의對日態度急變에 對하야 米國의 識者間에는 右는此에依하야 西歐諸國에 不安의念을興하야써 彼等으로하여금中國에經濟的援助를 與하려하고 中國一流의政策이라고 觀測하는側도不少하나 政府側에서는 日中親善이 從來와如히 單純한 말뿐이아니라 相當히 具體化하려는形勢에 漸次注意를 拂하기 始作하야 萬若日本이米國의銀政策에依하야 窮迫된中國의財政的困難을 利用하야此에援助를與하야 何等特權을 어드려하면 門戶開放主義에 抵觸되는것이라 하야 中國에重要한利害關係를가진英國과그對策을考慮하게된것이라고觀測되다 英米協議에關하야米國側에서는 英國이 이니시아티브를取하엿다고하는 말도잇스나 果然어데서 問題를먼저이르켯는지 不明하다 그리고 米國側의意向은 米國의 銀政策으로 中國이 財政的苦境에 陷하엿다고하면 援助하기를 不吝하는바이나 對中援助에 九個國條約及一九二〇年의日英米佛對中四個國借款協定에 基하야할것으로 一國의單獨行動을認定할것이 아니라 日本을 包含한中國關係國의 協力에 依할것이라고한다 英米의協議가 어느 程度로 進捗되엿는지는 推測할수업스나 今日의英米會議은 對日提携의 第一步가되는것으로 今後日中關係의 轉換에 伴하야 兩國으로부터 九個國條約調印國에 相議할 可能性도 着破될으로 英米의 態度는 자못注目되여잇다

各種重要法案을中心 波瀾反覆은未免

十年度追加豫算提案同時에

【電通東京電話】今期議會도去一月二十二日再開以來 四旬을經過하게되엿는데 貴族院에서는明年度豫算案審議도 漸次終了되여 衆議院에서는 目下臨時利得稅法案을비롯하야 米穀自治管理法案, 産繭處理統制法案等 政府提出重要法案審議를急히하고잇다 政友會의强硬派의 固執이만큼 따라爆彈動議의提出키로되여 解決되는後로 政府도 政局前途에 對하야는 愁眉를開하고 此等重要法案도多少修正은 밧드라도 結局政府原案의趣旨는 通過되리라고 樂觀

中國側誠意보이면 外相이直接出馬

渡中하야要人과交涉

【電通東京電話】廣田外相은日中提携를 一層具體化키爲하야 中國側의誠意如何에依하야는 中國에스스로出馬하야 蔣介石氏以下國民政府要人과 會見하야스스로折衝하려는 決意를가진에이르럿다 即萬若國民政府가 傳하는바와가티 三、四月頃立法院長 孫科氏를 正式으로 國民政府代表로새로派遣하면 廣田外相도 이에이어서 今年녀름渡中할것으로 期待되여잇다

地方稅制整理案 知事會議附議後 具體案作成할터

地方稅制整理案은 內務局原案에對하야 財務局과의 會議도 終了하고 來月中旬 定例道知事會議에 附議하야 各道의 意見을參酌한後에 具體案을 作成하기로되엿다 改正要旨는 旣報와가튼 內容으로 全朝鮮一律的이다 만道에따라 制限賦課率을 多少相異한것뿐이다

人事·集會

▲矢島杉造氏(朝鮮總督府農林局長) 新任人事次來社

八面鋒

◇日英米三國海軍休日案을 日本이提出하려라고, 倫敦電報가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者의 故意宣傳이오 日本의 眞意誤傳이라고 東京政府가 憤慨。

◇一百大學 十萬學生이 戰爭反對로 하루동안 休學할것을 計畫하고 準備中。

◇但, 이것은 太平洋건너 米國의일이오, 來四月에나 實現될일이라고。

◇오늘부터 市內의中學校 卒業式이 여기저기서 잇다。

◇배울때의希望 배울때의元氣, 그대로가진채 새社會의 일人군이되기만바란다。

橘氏·兵營內招待事實 馬占山問題質問

福田氏·陸相問答內容

【電通東京電話】一日午後衆議院 決算委員會에서 民政黨의福田關次郞氏는 左와如히 林陸相과의 問答을 거듭하엿다

福田氏 血盟團의加盟者인 橘孝三郞과如한人物을 現役將校가 兵營內에招待하야 饗應을한 危險思想을鼓吹한結果 그外가튼不祥事件이 突發하게되는것이라고思하는바 林陸相의所見如何

林陸相 今後는 軍을嚴密히하야行하는諸外講演은 軍의統制과軍의根本義를 確認할方途를 取하기로한다

福田氏 馬占山은 皇軍에게討伐되어도 不拘하고 그遺品은 靖國神社에서 天覽에供한것으로아는데 馬占山은戰死치안코 中國에凱旋하엿다 이러한것은 實로重大한不敬이라고思한다 또滿洲事變의戰利品의處分 張學良의金庫中에서나왓다고하는 日本政客數名의金錢領收書의存否 軍需工業에關聯된 不正事件等에對하야 査問委員會設置를要求한다

林陸相 馬占山의生死는 當時滿洲軍부터의報告로正確한 陸軍省發表에基한公表는아니엿으로 그點에誤解가잇는줄로思한다 馬占山의遺品은 天覽에供하엿스나 決코 死亡한馬占山의遺品으로 供하지는안흔줄노 信한다 또 戰利品은 모도 戰時國際公法에基하야 極히 適當히 處分하엿다 張學良의金庫에關한것은 如何한意味의質問인지理解할수업다

奉天見聞記

山高水麗朝鮮서 想像못할滿洲塵

(三) 徐椿

新聞에서 생각저 생각하는 동안에 몬지가 얼굴을 뒤집어 씌운다。滿洲라고 다 그러리요마는 奉天一帶는 몬지만키로 有名하다。朝鮮 가트면 회오리바람이나, 부러야 볼만한 몬지를 奉天一帶에서는 一日二十四時間 通하야 時間의 制限업시 본다。이곳에 常住하는 同行들의 말을 드르면, 오늘은 比較的 바람이 업는故로 그래도 덜한 便이라고한다。덜한것이 이地境이라면, 이보다 甚한때의 몬지는 처음 본는 나로서는 想像도 할수업다。이때 나는 생각햇다。서울서도 料理집 가튼데 가보면 더운물에 빨은 手巾을 얼굴 닥그라고 내놋는데, 이 法이 中國方面으로 부터 온 法이라더니, 그말이 虛言이 아닌것을 發見햇다。이러케 甚한 몬지면, 한 三十分 도라단니면서 뒤집어 쓴 지는 솔로 털려니와 얼굴의 몬지는 씻지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自然, 세수를 할것인데, 出入이 잇슬때마다 세수를 하기는 귀치안키도 하려니와, 원체, 물이 不足한데라, 그러케 쓸 물도 업는故로, 手巾을 뜨겁게 물에 적셔 얼굴을 닥는 法이 생긴것이 分明하다고 斷定을 부처, 보앗다。그러고, 滿洲사람들이 세수人물 한대야를 떠다 노코서, 다섯이고, 열이고, 쥐돌리가면서 그물이 업서지도록까지 쓰는 風習은 내가 二十年前에 왓슬때에 目睹한 것이다。이風習도 只今와서 생각하니 물 不足한데서 사는 住民으로서는 그環境에 마추어 自然히 생겨 난 風習으로 볼수밧게 업슬것이다。

몬지가 만흔때문인가 滿洲사람들 가운데는 눈 알른 사람이 만타。눈은 얼굴에 달녀고, 얼굴은 보이는데라, 안보려야 안볼수 업시, 꼭꼭 보는데, 오고, 가는 行人가온데 十分이 멀다하고, 눈 알는 사람이 보인다。눈 가상자리가 빨안것이 도라롤 돌닌 사람가튼것이다。同行者의 말을 드러보면 그러기 때문으로 滿洲에서는 眼疾이 크게 時勢가 난다고 한다。果然, 그 後、奉天城內 都市街에 드러가서 보니 眼藥廣告가 到處에 부텃다。眼科醫院로 滿洲를 차저 가면 登場을 바를 것이다。滿洲사람의 눈이 나쁜것은 家屋制度가 異常하게 된데도 크게 關係될것이다。亦是、二十年前의 記憶을 가지고 하는 말이나、滿洲의 家屋은 부억과 房안이 서로 通햇다。말하면 房과 부억사이에 隔壁을 막어 노흔 壁이 업다。따라서 부억에 불을 때면 煙氣가 房안에 꽉 드러찬다。내가 當해 본 經驗에 依하면 房안 煙氣에 눈이 쓰리고 아파 죽을 地境인데, 그사람들은 그것을 例事로 알뿐아니라, 그러케 煙氣에 못이기는 氣色도 보이지 안는다。그러나 當하는 사람이 이것을 苦痛으로 생각하거나 안커나 煙氣의 눈에 對한 刺戟은 物理的이요, 生理的이니까, 이런 家屋에 사는 사람의 눈이 健全할수는 업는것이다。

그러면 몬지가 만흔것은 웬까닭이냐하면 그것은 東北으로 烈風地帶시베리아와 沙漠地帶蒙古를 이웃햇슬뿐만아니라, 이一帶가 山업고, 草木 드믄 平原曠野로 되어잇기때문이다。그냥 平原曠野라고만 해가지고는 山高水麗, 山林茂盛, 奇花瑤草에 豐富한 朝鮮에 사는 사람은 이 地帶를 想像할수가 업슬것이다。서울로 말하면 [illegible]를 千個고 萬個고, 죽 느려 노코서, 거긔 난 풀을 全部 탐아 버리면 그것이, 即, 奉天一帶 平原曠野의 秋收以後부터 翌年春耕期까지의 光景일것이다。듣는바에 依하면 이 平野는 南으로 大連까지 連續되고, 뒤로는 興嶺, 開原等地에 若干 山이 잇스나 이것을 例外로 잡으면 新京, 哈爾濱까지 平野는 連續되여잇다고한다。눈 압헤 보이는 限까지는 山도 草木도 업고, 野한 들으로 된 바둑판가튼 平野가 前後左右에 連接햇다。鳳山 沙里院人벌이 크니 載寧나무리人벌이 크니、金堤萬頃人벌이 크니, 해도 그따위人것은 이 平野에 대면 그야말로 名辭도 드릴수 업는 程度다。해와 달이 밧 이랑으로부터 떠다가 밧 이랑으로 진다。地球가 둥근것은 바다를보면 안다고 햇거니와, 奉天一帶에 天文地文에關한 大學者가잇섯드라면 그平野를가지고도 넉넉히 大地球形說을 發見햇슬것이다。何如間, 이러케 생긴 기때문으로 西比利亞 바람은 蒙古에서 모래를 싯고 와가지고는 이一帶의 흙을 떠부쳐가지고, 오고가는 行人의 얼굴에 뭇칠에 씩우는것이다。(續)

◉朝鮮이 낳은 名士들의 力著紹介

沈熏作 永遠의微笑
「永遠의微笑」는 일즉이 中央日報紙上에 連載되어 十數萬讀者의 마음을 쥐어흔들어 놓던 沈熏氏의 力作이다。作者의 力量을 이제 새삼스럽게 紹介할 必要가 업거니와 氏는 朝鮮文壇에 잇어서 天才라고 일컷는 作家다。더욱이 이「永遠의微笑」는 朝鮮의 農村에서 取材한것이니 이책을 펼쳐지고 나가는 靑年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질것이요 뭇은 先生이 되어질줄 믿는다。
四六判500頁 ￥1.30 〒.12

金東仁著 短篇集「감자」
오늘날의 朝鮮文學의 礎石을 이룬 이 八個名篇에 二千萬 白衣民族은 感激하얏다。待望旣久한 金東仁氏의 短篇集이 이번 本社에서 發行되엇다。平壤七星門밧 貧民窟에서는 貧困과 疾病밧게 다른 自由를 가지지 못한 [illegible] 「감자」는 殺人의 慘劇이다 [illegible] 名作만 모은 近來의 快著。
四六判[illegible]頁 ￥.60 〒.04

韓仁澤著 旋風時代
四六判500頁 ￥1.20 〒.06

李泰俊著 短篇集「달밤」
四六判350頁 ￥.80 〒.06

李光洙著 長篇小說「흙」
四六判800頁 ￥2.00 〒.21

李順鐸著 最近世界一週記
四六判[illegible]頁 ￥1.20 〒.0[illegible]

金億譯 忘憂草
四六判1[illegible]5頁 ￥.70 〒.04

金台俊著 朝鮮歌謠集成
菊判226頁 ￥.80 〒.08

李殷相著 鷺山時調集
四六判199頁 ￥.70 〒.06

韓龍雲著 님의沈默
四六判170頁 ￥1.50 〒.08

沈宜麟著 朝鮮童話大集
四六判280頁 ￥1.00 〒.08

李殷相著 朝鮮史話集
四六判283頁 ￥1.00 〒.08

時調노리(一名歌鬪)
이 時調놀이는 그 遊戲方式은 在來의 歌鬪와 마찬가지나, 그 體裁와 內容에 잇어서는 斷然 同一의 論이 아니게스리 優秀特別한 點이 만케 되것이다。우리의 文學遺產中의 首位인 古時調 二千首中에서 百首를 뽑되 이를 그 專門大方으로 이름은 定評이 잇는 鷺山李殷相氏에게 囑하여 한일이라 하나도 빼잡힘이 珠玉인것 首首이 다시 말할것이 업고 그우에 排譜의 名星으로 들린 一松崔永秀氏의 카트를 加味한것은 더할수 업는 珍品이다。
極美麗二度刷 ￥1.20 〒.20

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三十二 振替京城七六六○番 漢城圖書株式會社

初等教員層大地震 二千餘名을移動

老朽陶汰新進拔擢綱紀肅淸爲主 新學期初부터斷行

상업학교부터 사범학교까지 약이주일간에 전조선각초등학교 교원의 대이동을단행한다는바 그범위는 실로이천여명에 달할예상으로 학무국에서 자사한 이동원측에의하야 방금각도에서 전형중이라한다 금번초등교원이동은 간이학교 이백이십교증설 신설보통학교 일백사십사교 기설보통학교의 학년연장에의한 학급증설과 또학급차 연증설거타에의한 새교원의 채용과 로후(老朽)한교원의도태등에의하야 또 교원의장기속청산등의리유로움직이게 되는것이 신삼도를 要하여 이천명을초과할현상 이라한다 그리고 학무국에서 초등교원의이동에대한 근본적방책으로는 다음과가튼것이 이미각도에 시달(示達)되어잇다한다

一、로후한 교원으로 아동훈육상능률을발휘치못할자는도태할것

一、시가지와 농촌학교를 구별하야 영전또는좌천운운의 종래의이동방식을 타파할것

一、간이학교 교원은 우수하고경험잇는 중견교원을 선발할것

一、교풍을편하고 또는교육상 매우 곤난한곳에서 다년고생을한 교원은 발척하야 교장등으로등용할것

一、교원의사상문제 노력기타에대하야 엄중한 조사를하야 이동을식힐때에에대한참작을하야야교원의입지를 견정할것등으로 특히교원간의알력과 또생도대 교원간의불화등을 이번기회에 일소하여버리게이동전형은 극히 엄격하게한다는것인데 학년말과 새학년초를압두고 초등교원의대이동은 과연어떠한결과를 나타내일가 매우주목되는사실이라한다

〃石油綿〃放火犯

有力嫌疑者二名檢擧 私怨關係?內容은매우複雜 不日正體는現露될듯

방화마의 활동으로 지난이월이십일과 이십칠일에 두번이나 솜에석유를 빠라여서 성냥과가티신문지로싼뒤에 불을붓처서 집웅에던진계획적 방화사건으로 전전긍긍매일밤가타 거야밤잠을 못자게하든 시내종로오정목삼백이십삼번지박도복(朴福福)(三七)의집방화사건은 그간동대문경찰서사법계에서박도복과시현관계의 안록과 방화시에사용한석유솜과신문지등기타 방법으로 자료를수집하야 혐의자로시외마포(麻浦)의정모(鄭某)외일인을지난달 이십팔일밤에 인치하고엄중히 취조중으로 전부가원한관계라고할수는 업지마는 박도복집의화재만은 이사혐관계의소행인것이판명되여 동서 사법계에서는다시 확실한증거를 잡기위하야더욱 추궁을하고잇는바 오래동안동서의 두통거리이든 방화마의정체도 불일간폭로될모양이다

下往十里失家兒 일일오후열한시 사십분경 시외하왕십리(下往十里)큰길거리에 년령다섯살가량의사내아히가 길을 일코방황하는것을파출소원이 곳동행하야보호하얏스나 보호자가 업슴으로이일아참에 동대문경찰서로 동행하야하로보호중인데옷을깨끗이입은것으로보아서는내버린자식은안인 듯하나 하로가지나도록 찾지안는 점으로는생활난의기아나안인가관측된다고한다

作黨코欺詐賭博 七千餘圓을騙取

鄕客을誘引上京까지하야 形跡避코저監禁까지

인천부우각리(仁川府牛角里)삼백이십팔번지해산물상(海産物商)박홍순(朴洪順)(四二)부내봉익동(鳳翼洞)십사번지 정룡수(鄭龍洙)(四九)공평동(公平洞)삼백오십이번지진성운(陳成雲)등삼명은지난이월초순부터 수원군음덕면 안석리(水原郡陰德面 安石里)림영화(林榮華)를 끄을고시외 상왕십리(上往十里)청련사(淸蓮寺)와시내관철동기생최금향(崔錦香)의집으로단이면서전후사오회로사긔도박을하야현금칠천백원을편취한혐의로 범죄형적을감초기위하야 부내 서린동(瑞麟洞)일백 이십번지 빈집에 감금까지 하얏던것을 작일밤동에종로 경찰서원이 일망타진으로 전부체포하얏다한다

土木管區新築 【龜城】 귀성향교의 풍화루(風化樓)를림시로대용하여 사무소로 쓰고잇든귀성토목관구는 항상불편을 늣기고사무소건축을계획하여오든바명이개소를 신축하기로 내정하고토목주사가 출장하여조사를 하고잇스나귀성과강계의량곳으로결정될모양인데 귀성유지들은 긔지만은제공할생각을가지고잇다한다

市內各專門學校 卒業生送別音樂會

리화전문、연희전문、세부란스의전、협성신학등네군데학교의 기독청년회주최로 오는삼월(二日)밤부터 시내장곡천정공회당에서 음악회가열릴터인데 리인범(李仁範)씨의 테너독창、문학준(文學俊)씨의바이올린독주、리유선(李有善)양의 피아노독주외에 세부란스의전의 중창과 리화전문의 글리클럽、연희전문의 오케스트라등드를만한것이 만흘터이라한다

中等教員大量採用

新學期부터開校할中等校 三女高普外三個校

금년사월부터 신설되는 중등학교는 라남(羅南)、함흥(咸興)의량녀자고등보통학교와 인천(仁川)중학 금천(金泉)고등녀학교 강계(江界)농업학교등이잇고 또춘천(春川)고등녀학교의 학년연장과 신의주(新義州)상업학교의 학급증설등에 의하야 새로필요한교원은 약오십명에 달함으로학무국에서는 경성제대(京城帝大) 기타대학출신과 고등사범출신등에서전형하야 임명할터이라는데 금번에는 이에의하야 중등교원의신규채용이 매우만케되는셈이라한다

普通校期成會 【漣川】 련천군남면(漣川郡南面)에는 교육기관이 업는것을 일반면민은 항상유감으로생각하든바 금번당지면장 현종천(玄鍾千)씨의 활동으로 간이학교를설치키로 하고지난 이월이십일 하오한시부터 본면삼거리(三巨里)진흥회관에서 면내 유지일동을망라하야 긔성회를조직하고 다음과가튼 긔부금모집과 위치선정 임원선거등을토의진행하엿는데 오는 사월중순경에는 개교를보리라고한다

決議 (收入)
面內有志寄附金 六〇〇圓
大豆種子契寄附金 三五〇
合計 九五〇
位置 本面進佳里
任員 會長=玄鍾千 副會長=…

實現이遼遠한 京畿道內一面一校制

今年度收容人員은七萬八千餘名 就學者는志願者七割平均

경긔도내의 공립보통학교는 현재 이백삼십삼교로서 그중에 아즉미개교가 여섯학교나잇스며 그수용생도는총수가 칠만팔천 이십삼명이다 그것을 도내의각면(面)수와비례한다면경성(京城)인천(仁川)개성(開城)등 부청소재지를 제하고겨우 일면일교가 될가말가하게 되지안이한다 그리고 소화오년이래의 입학지원아동의수용력을보면다음과갓다

年度	入學志願者名	入學許可者名	入學許可者對志願者
昭和五年	一九、六六一	一四、六七三	〇、七四四
同 六年	二〇、三三二	一四、五七八	〇、七一八
同 七年	二一、二六五	一六、六三四	〇、七八六
同 八年	二四、六六五	一九、三一三	〇、七八四
同 九年	二六、三六六	二〇、四四五	〇、七七六

그리고 경긔도의 금후계획을보면 일면일교제가되기까지는소화십이년도에라야 겨우완성케되리라 하니 경남도가튼데 비하면 오변이나뒤떠러지게되는세음이고 이의보충으로 각종사립학교강습회 서당등이잇스나 이로써는 일시완화책바게되지아니하는것인데현재도내의사립학교급각종학교의통계는다음과갓다 ▲私立普校二十三校▲各種學校四十一校▲特殊講習一百二十一校▲書堂五百六校

全南長興邑內에 不穩檄文을撤布

內容激烈한膽寫物을市內處處서發見 張本은赤色團體指目

모지차전 삼일일의경게에대하야는 일주일전부터 전조선각지의 경찰에서 물샐틈업는경계를 하여 삼일일이닥쳐옴에는 새벽부터 비상경게를 일제히하엿는데 이와중한경게망을뚤코 격렬한 문구를 쓴격문을 산포한곳이잇다한다 전라남도장흥(長興)읍내에는 삼일일새벽에 시내중요지대에 산포한것을 장흥경찰서에서 일찍 발견하고 곳서원총동원으로 범인의수사를한결과 일일새벽에수모범인두명을검거하야방금엄중한취조를하고잇다한다 격문의내용과 범인의 인물관게로보아 적색단체에서 이날을리용하야 선전선동을 하려는획책이엇든것으로 장흥읍은 작년여름에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사건검거당시에 일시에 이삼백명을검거한일이잇든 농민운동이맹렬한곳이며 또작년대검거에중요인물이대부분검거되엿든 이후의사건이니만치 이번격문산포의 배후에는 재조직운동단체가 움직이고잇는것이아닌가하야당국에서는사태를중대시하고방금전남경찰부에서는장흥에급거출장하야 대수사를 개시하엿다는바 사건은의외에 확대될는지도몰은다하야 비상히 주목되는바이라한다

客月中市民食肉 牛豚二千六百頭

지난이월중의 경성부도수장(屠獸場)의가축도살상황은 총계이천륙백이십삼두(頭)에그가격은 삼십칠만구천사백칠십오원이십전 인데 소(牛)는일천륙백사십칠두에가격 … 실륙마일백칠십팔원팔십전이고

春宵紅燈下에 流血亂鬪劇

昨夜仁寺洞酒場에서

네온싸인이 명멸하는 홍등록주의밤거리에서 남녀가 어우러저일대류혈극을 연출한 이약이——작일오후십일시경 시내인사동 팔십칠번지(仁寺洞) 불로식당(不老食堂)에서 고양군한강면 아현리(高陽郡漢江面阿峴里) 홍사억(洪思億)(二二)과 동리 우용선(禹龍善)(二一)두사람이 술을먹다가 그엽좌석에놀던 시내종로이정목 구십팔번지 동아광업사(東亞鑛業社)리만기(李萬基)(二〇)와녀급관게로싸홈이 이러나서 서로술병과긔구를들고 대란투를한결과 량편이모다상당한부상을 당하엿슬뿐더러 그싸홈에 휩술러든 녀급들이삼인도 안면에부상을당하야 식당안에는 선혈이림리하얏다 이신고를바든 종로서에서는 쌍방을모다인치하고 엄중히취조중이다

痴情의毒焰

變心한情婦에게괄세當코 深夜에放火로復讐

치정에 타올르는 불길이맛츰내방화까지——양평군갈산면 오빈리(楊平郡葛山面梧濱里)팔십팔번지정갑룡(鄭甲龍)방에 거주하는 리백휴(李白烋)(二一)은 지난 소화팔년음력삼월경부터 동구년 시월경까지 그동리팔십구번지리승주(李承周)(二一)의집에 고용사리를하다가 병으로해고를당하엿는데 그가그집에잇슬때에 정과리승주의 이남 리봉환(李鳳煥)이가 일본내지로가고 업는사이에 그의처김성남(金姓男)이와 정교관게를 매저오다가 지난달이십사일밤 십이시경에도 상차나담을넘어 드러가김성남의방문을 뚜드렷더니 문을꼭구지닷고 열어주지안이함으로 원한을품고 그집에 불을지른후 도망하야 버리엿던바 다행히 그집을 반소할뿐으로 인명의사상은업섯다 범인은 삼월일일오전 십일시경 그부근 음식점에서술을먹고잇는것을 무난히 붓드러방금취조중이다

世界的拳豪徐廷權 五月中歸國

米大陸에快戰跡남기고、

世界拳鬪界日本의王座를 目睫間에두고 奮鬪하고잇는우리의至寶徐廷權君의 最近消息=一九三一年渡米以來 滿三年間을두고米國各地의各戰場을轉戰하야 數百次에걸는 게임에서 거의全勝의快戰을남기여 그勇名을 米國天地에떨치고잇는 君은 沸騰하는 人氣속에서 米國政府의 好意로 果然나하는날에 滿米期限을延期의 優待를 바다왓는데 來五月로서 아조 滿期를맛게될것도 理由러니와鄕里全南順天에서君의歸鄕을눈보기달리는그嚴父의慈情을拒逆할수업서君은五月中旬 凱旋將軍으로 桑港을떠나歸鄕의途에 오르게되엿다한다。方今은「뉴욕」에 머물러잇서來五月까지에 世界選手權을 獲得할意氣로잇스나 萬一如意치안으면 一時歸國하엿다가 再次渡米하는날에 宿望의選手權을 잡을決心이라한다 君은 그동안에 貯蓄한巨萬의 財産을 압세우고來七月頃에는 그립든故國의땅을밟으리라하니깁븐消息이다 【寫眞은徐廷權의싸인과勇姿】

諾威너孃이作成 女子氷上五百米 勿驚四九秒

【오슬로二十八日發電】世界女子氷上競技選手權大會는 지난二十六日에「프로그네르」링크에서열린바「니―르젠」孃은四十九秒三의驚異的記錄으로從來「리―」孃의世界記錄五十秒를突破하엿스며二着은勿論「리―」孃으로五十秒四、三着은米國女流氷上界女王「킷트·크렌」이다 그리고 二十八日夜에는 同링크에서 「쏘니어·헤니―」孃은「피―귀어·스케―팅」에 美技를演하야 滿場觀衆을陶醉케하엿다

京仁驛傳에出戰한 平壤팀入京

明三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前을出發點으로 擧行하는 京城…仁川驛傳競走에 出戰할平壤平安百貨店팀一行七名은 監督鄭龍興氏引率아래 一日에入京하야 太平通奉三旅館에投宿하엿다 (寫眞은 本社來訪한平壤팀)

올림픽委員會 決定事項發表

【伯林오슬로一日發】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에서 決定된事項을如左히發表하엿다

一、國際올림픽大會는 競技할때賞金을 授受하는選手는아마추어資格을喪失할것을 이에다시確認할것

一、國際올림픽委員會는 이지음賞金이 若干國에서授與되엿다는 風聞을探하고 各國의내쇼날올림픽委員會가 이가튼賞金을授與하는것과가튼 誤謬를犯치안키를要求하는同時에 올림픽委員會의規定 第一條(아마추어定義)의再調査를決定함

一、右決議는 委員會議長으로부터 各國올림픽委員에게通告키로함

延專柔道部 證書授與式

延禧專門學校 柔道部에서는來四日午前十一時十分부터 同校에서昇段昇級者證書授與式을擧行하리라는데 이번의昇段者는 二十五名이요 昇級者는 十三名이라고한다

總會開催地決定

【伯林오슬로一日發】 國際올림픽定時總會開催地를 다음과가티決定하엿다 ▲一九三六年伯林 ▲一九三七年와르소 ▲一九三八年카이로

獨逸서船賃割引

北獨逸에잇는「로이드」汽船會社에서는明年度의伯林올림픽大會에參加하는 外國選手、役員、家族等에게 二割의船賃割引을公表하엿다

白晝竹添町에火災 崔牧師住宅燒失

損害五千圓、原因失火

일일오후네시오십오분경에시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삼십오번지 동양선교회(東洋宣教會)구내최석모(崔錫模)목사가들어잇는사택에서불이나서 목조건물 일동이전소되고 다섯시삼십오분경에 진화되엿다 손해는오천삼백원가량인데원인실화라고하며 사천원에 화재보험에드럿다고한다

空食漢拔劍行悖

濁酒三杯를無錢取食하고는 常習者로警察에被捉

막걸리석잔값을 못내어 일척의단검을빼바들고 사람을 상하려들다가 경찰에잡힌만용(?)의 과자직공—원적을 장기현(長崎縣)에두고 시내본정삼정목 사십오번지과자직공강기영장(江崎榮藏)(二二)은 이일오정경한시이십분 시내앵정(櫻井町)일정목 칠십팔번지 김상익(金相翊)의 막걸리집에서 술 석잔을 먹고는 갑슬내지아니하고 도라가랴고 하므로 전기주인이 힐난을하자 강기는무수한폭언을 하면서 회중으로부터 한자가리나되는 단검을빼아들고 위협을하엿다。그리하야즉시 부근파출소에사유를 고발하야 동인은 본정서에검속되엇는데 그는 언제든지 그와가치한푼의돈도업시 무전음식을 하고는대금을청구하면 단도로 위협하고다려나는 상습자인것이 판명되어동서에서는엄중취조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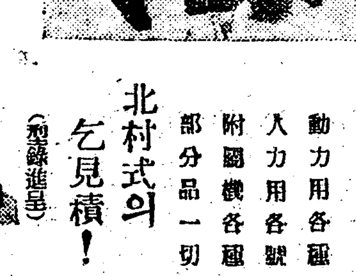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 黃海로부터 南朝鮮을經하야 日本西部에擴大되고잇는데 그勢力은弱하고 東支方面도 氣壓이놉다 低氣壓은 南滿과北海道東部에잇다 全朝鮮이 大槪日氣가조흐나 中部는흐리다 氣溫은 釜山四度와中江鎭의零下六度間에잇다 明日도 日氣가조타

昨日最高 七度八 最低 零下一度七
今朝最低 零下一度八
今日正午 七度六

淸淨·高雅한 美의뒤에는……「牛乳」란 動源役이잇다 紳士淑女도갓난애도

商標登錄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北村式製麵機

中島式自動製粉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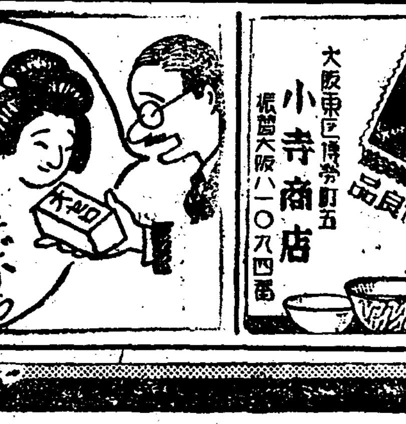
斯界의覇王!! 動力用各種 人力用各號 附屬機各種 部分品一切 北村式의乞見積! (型錄進呈)
京城府黃金町二ノ一八 北村鐵工場營業所 電話本局二一八一番·振替京城二二四六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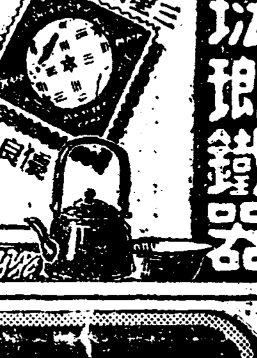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有賀光豊
資本金參千萬圓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財務局證券代理店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餘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新民謠 半島를振動시킨 朝鮮타령 姜弘植 四〇五五
Columbia 콜럼비아레코―드

빅타― 新포―타블

봄!行樂에
三五年式手提型을 넘지마십시요。갑도싸고소리도훌융하게좃슴니다。빅타―레코―드는 郊外一日의行樂을 더욱즐겁게합니다
J一〇一〇 金三十五圓



琺瑯鐵器 優良品 三星印

大阪東區博勞町五 小寺商店 振替大阪八一〇九四番

피곤! 음 히베고 ¥30 50

腫氣◇火傷◇創傷◇濕疹に 靑山膏
代理店 木村藥房 新井藥房
京城光化門通四街里 靑山藥局化學研究部 振替京城一八一三五番
¥10 20 35 50

總督指定 崇實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第一學年約百名、出願期日 三月十八日限
試驗期日 三月二十一日、二十二日、平壤府新陽里 電話一一〇七番

春期男女學生大募集
朝鮮第一自動車學校
京城府太平通二ノ四〇番地 大漢門前 (電話本局四〇六八番)

◉理化學的研究로된漢藥草인枇杷葉液이萬病에神効한을警覺할지어다
消化器·呼吸器·婦人病·皮膚病·中風·脊椎病·神經痛·痔疾專門=枇杷葉理化學治療總本院 或希望人에게는規則書進呈
慶北金泉邑城內町(入院室完備) 院長 白南信
◎開業以來枇杷液에有効한實驗者가有하야近來某地方에서는治療上에도一無經驗한者가有形無効한類似液一種으로만가지고醫院을開業하는者或者는枇杷液이라詐稱하고暗暗히散賣하는者가有하야醫院에眞正한藥効上信用關係가不少中이오니醫院에서는各病症에依하야四種別로區分된眞實한枇杷藥으로製藥일뿐散賣는絕對不許中이오니江湖各位에或有事時要注意

끼리히찌에

술집을나오니 갈길이망연타

문 저는 가정이 빈한한관계로 십칠세때부터 우금팔년동안 작부생활을하야왓습니다. 물론술이나마시고롱지거리를하는데만큼 날마다사람갓지안흔손님만 겪게되야남몰래울며울며 세월을보냇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류월에어떤청년을한분만나서 진실한충고를 밧지안햇습니까? 그청년의충고대로 실행하야서 이제는 주인의빗도다갑흐가지를안습니까? 그청년도 생활이곤란한까닭에비록 물질적으로는동정한것이업스나 정신적으로는 나를갱생시켜준그마음 나의잇지못할은인입니다. 떠군다나그청년은 엇지나 양전하고 진실한지 술도 마실줄을 모르고녀자의 얼굴도 잘쳐다 보지를 안합니다. 그러나 불행히 그는 량반의집 자제로서 부모도게시고 친척도 만습니다. 저와가튼 작부와결혼하기는 도저히 어려운일입니다. 그의말인즉 나머지의 채금을 어떠케 마자가팔을테니 적당한 남자를 선택해서 시집을 가거나 그러치 안컷든 자긔는지금 딴처녀와 결혼할수밧게 업는사정이니 이삼년 더 기다려달라는것입니다. 그청년과가티 그러케양전하고 순실한남편감이 어대잇겟사오며그러타고 또이삼년후의일을 엇지미들수잇사올지 가슴이답답하고 압길이캄캄합니다. 어찌할까요? (一女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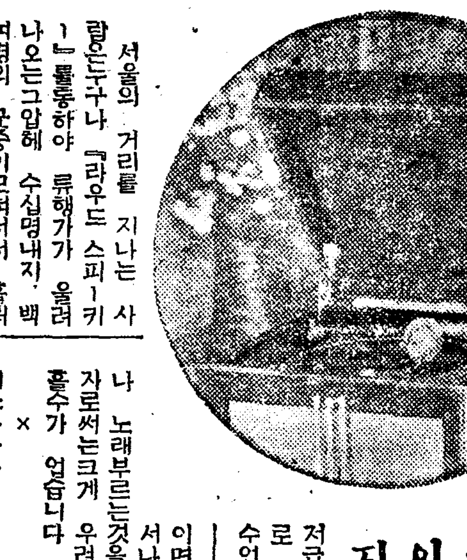
좀더널리구하면 조흔배필도잇소

답 그럴만 당신을지도하야 새길을개척케한그청년은 물론당신의은인이라 당신이그를사모하고못잇는것은 당연한일이외다 만일 당신과 원앙의짝을이루어 백년해로를 하게된다면 더말할것도업고 설사 그러치안타라도 당신으로서 그의 은혜를이저버릴수는 업는것입니다. 그러나 그청년은나약하고 무긔력하야 아모래도 표준적량반의 자질이 아닙니까? 그의부모친척은 량반의권위를 직히기위하야 저날작부와의 결혼을 반대하겟지만 어째서 그로서 한번그반네를 꺽거보려고 하지못합니까? 은혜는 은혜요 결혼은 결혼이라은혜잇는청년에 한하야 반듯이결혼을해야할것은아닙니다 그런청년과의결혼이 도리어당신의장래를위하야 현개한듯 좀더신중히생각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러고자긔는딴녀자와 결혼할테라면서 또무어하러당신더러 이삼년을기다리라합니까? 그때가서그결혼한녀자를리혼하고다시 당신과결혼하겟다는말입니까? 미들수업는소립니다. 미더서는 안됩니다. 상줌인당신으로상줌과결혼하도록하시요. 좀더널리구하면 그만한배필이반듯이업슬것도아니외다 (愛海生)

家庭

아이들입단속보다 먼저 소리판 선택

철업시귀익히는『사랑이야지야』 납분류행가를배척하자



서울의 거리를 지나는 사람은누구나『라우드 스피ー카ー』를통하야 류행가가 울려나오는그압헤 수십명내지 백여명의 군중이모혀서서 홀려나오는 그소리에도 취되어리에 잇는진기러운 광경이 전개되고잇는것을 보실것입니다

×

일반이 음악에 대해이가티 도취되어가는

발거름도멈추고

듯는것을 볼때이는 크게기뻐할현상이라고 생각하엿습니다 그러나 요지음의 유행가가 이마치사회인의 인긔를끌고잇는데불구하고 그가사(歌詞)나작곡이 말못할만치저급한것때문에일반에게 주는해독이적지안흔것을 생각할때『레코ー드』회사에 대하여 좀더 고려하라는 경고를 발하지 안흘수가 업는것입니다 적어도 류행가가 일반대중게

끼치는힘이만흔

만큼 그것은 사회교화상에커다란 관계가 잇는것입니다 출판물은 문자를 이해 하여야 하고 또 문자를 리해하드라도 그것을 이저어야하느니만치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것이지만 이노래야말로 귀로써 듯는것이므로 그것의 류행은 급속도로 확대되는것입니다 그러니마치 이류행가는 사회교화란 의미에서좀더그시대생과 그만족의정조를 방영한것을 취입하지 안호면 안될것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저급한ー그야말로 입에 담을수업는 저급한ー 가사를외이면서 거리에서나 가정에서나 노래부르는것을 볼때 식자로서는크게 우려 하기 안흘수가 업습니다

×

어느나라나 그류행가가 업는나라는 업습니다 음악의나라에도 이류행가는 잇습니다만 아모리류행가라 하드라도 그러케저급하고 에로틱한 가사에 천편일률적 인 곡조로서 이끕고 맑고깨끗한 땅의

순진한사람들의

귀를 더럽히는것은『문화저열쇠』라도 지울필요가 잇다고 생각합니다

레코ー드회사는 일반대중에게 영합하기위해서 영업정책상그리한다고를 하지만 사실에잇서서 이런저급한것은 결국자긔를망치는것외에 아ー모것도 얻을것입니다 물론일반 대중이

그런저렬한것만

조하하는것도 안이지만 한편생각하면 레코ー드회사가 이런것에만 착안한다면 머지안흔 장래에일반에게『보이코트』를당할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서는 특히 유의하야 가정으로는 저급한 레코ー드는 결코 사드리지말도록하십시오 그리하여 어린이들이나 일반가족들이 그저렬한레코ー드에 귀를더럽히지 말도록하십시오

세계에서 제일큰녀자

독일녀자로 아마세계에제일 큰녀자이리라고 누구나말하는『폰도로이센』자매입니다 다형은『도라』설혼살 키가일곱자인데 동생은『안나』스물일곱살인데 키는 여섯자 다섯치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딸들을 시집보낼데가 업서서(기실은 장가오겟다는사람이업서서)크게괴탄을했섯는데 삼년전미국 어떤곡마단에불려가서 기기괴괴한 땐스를하고, 노래도 부르고하야 상당한인끼를끄럿답니다

交換台

녀학교근처에색주가집들 밤이면장구소리에잠못자오

공덕리주재소관내아현녀자보통학교뒤스꼴목에는웬내외주점이그러케는지르모겟습니다. 녀자보통학교근처인마큼 좀허가를내주지안는것이 조치안켓습니까? 그뿐아니라밤이찌이속도록 장구소리 노래소리에 잡복잡복가업고 또나지라도그좁은꼴목에는 주정스군으로 하야서 부인녀자들이 다니기도 거북합니다 주민들의 안면방해와 풍해물편이 실로크니 좀취체를 하는것이어쨋습니까?본래 풍괴문제나보아도 내외주점가튼것을작구허가하는것은 재미업는일이라고생각됩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만스것을생각지못할리는업겟지만 좀더철저히하야주엇스면하고 바랍니다 (阿峴義憤生)

대답 본래내외주점은 엇새나는거이방침

번래내외주점에대하야는될수잇는대로업새어버리려는 방침이나이미 잇서온것을창졸간에 전부업새어버리기는 어려운일입니다 하여튼금후로더허가하야 주지는안할것이라 그점에대하야는 별로렴려할것이 업습니다. 그러고 밤느저통땅거리어 안면방해가된다고요?그것은 잘조사하야 처리하도록하겟습니다. 또그뿐이아니라 녀자보통학교부근에서 주정스군들이야료를한다고요? 그것도 어되케든지해서 다시업도록하겟습니다. (龍山警察署保安係員)

投書歡迎

이난을 만히 리용하서서 억울한일, 눈꼴틀 리는일, 괴이쩍은일 그타무엇이든지 직접눈으로보고 당한일을 써보내십시요 그러나 자기와직접관계업는일, 사회에별반영향을끼치지안는 일개인의사생활을 들추어낼것은업습니다. 「문시상에 발표는 안흘찌라도 본사까지는 주소씨명을 적어보내서야합니다. 그리고 글씨는 순조선문으로 깨끗이아러보도록써 보내시지안으면 안내는수도잇습니다

家庭메모

소고기사실때는 이런걸골릅시요

소고기는 갓잡은것은 섬하기는하지만 맛이업습니다 손고락으로 누르면탄력(彈力)이강하고 딱딱합니다. 맛이 잇스랴만 암만해도 여름이면 일주일, 겨울이면 열흘혹은 보름쯤지난것 말하자면 상할락고 하기전이제일맛잇슬적입니다 손고락으로 눌러보면 누른자리가 잡시 그대로잇습니다 기름끼두껍고 엉겨부튼것처럼 루덥루더해서 빛이하ㅣ얀것이 약간투명(透明)한것이 맛잇스며기름끼가엷고 누ー런것은맛이업습니다

내가본조선녀성 (四)

咸大勳

이상에서 나는 조선인의산녀성이 너무나 정렬이업고, 알에등한하고 또가정에 대해 불충실하다는것을 말햇습니다 특히 나는 그정적인점이 적은것을통탄햇습니다

그언제가도 나는 한번솔벨이 잇섯지만 로시아의 시인 네크라ー솝호』의 장편시『로시아부인』의 주인공의 정렬적자긔희생적인점에 대해 감복하지안흘수가 업섯습니다

이 장편시는 그당시 실재한 공작부인의 그정렬에 불타는사실을 시의 형식으로 쓴것입니다만이제 그주인공의 사실로써 보면 정렬업는 조선녀성에게 커ー다란 경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一八二五년이라면 로시아 력사상에 커ー다란 운동이일어낫든 해로 동년十二월당사건이라고 한는데 이운동에는 귀족들도 만히 참가하얏습니다그러나 그들은 성사가 되지못한때문에 시베리아 눈과 광야만이 찬바람속에 울고잇는곳으로 류형(流刑)이되야 떠나가게 되얏습니다

그러나 귀족의 몸이라고는하드래도 떠나간 남편을그대로보낼수업다하야그안해는설매하나를타고 그눈길을 달려가게됫습니다 바람은 차고 눈길은 놉흔데 아ー모것도 의지할곳업시 이길을떠나가는 공작부인의길은너무도험하엿습니다

눈! 눈! 눈! 그리고 찬바람! 털속에 무치어 찬바람은 볼랴고하여야 볼수조차업는 이공작부인에게 이길은 너무도 힘찬것이엿습니다

더구나 중로에는 관헌이 길을 가지못하도록 막류하고또 차부(車夫)조차가기를 즐겨 하지안컷만은 부인은 마음을 지날때마다 기진한 말(馬)을 바구어 메이고는 그험한 눈길을 달리입니다

×

이것은 오죽 남편에 대한참된 희생적, 정렬이 잇는때문입니다 남편의 몸을 자긔몸가치알고 또자긔는 그남편을 위해서는 어떤괴로운 일이라도 한다는 자긔 희생적 각오입니다 이귀여운 자긔희생적정신 이것은 어느나라 여성이나배워도 조흘일입니다

나는 조선여성이 남편이 협한곳에 간사이 다른 남성과꽃다운 결혼을 한예를 만히봅니다 그것도 정이업서든 사람이라면 몰으지만 동지요애인으로 결혼한 그여성이 남편이 불행한처지에잇는때 그런일을 하는것을보면 조선여성은 그귀엽고 놉고 고흔마음의 소유자가 아이라고 할것입니다

동근눈을 깜박이며 잠못자며 남편을 생각하는 그타는듯한 가슴ー심장ー을 가진녀성이 이조선에는 만히 나와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정렬적인 표현이행복된 결혼생활의 전부가 되여야 할것입니다 사랑에는조건이업고 정렬에는 리긔적인 심정이 업서야 한니다.

조선의 녀성은 좀더반성할점이 잇서야하지안흘가요

먼길갈때는침대차

그러나 이런 묘리를 알고 타야 하고 덜 피로한다

먼길가는데는 암만해도 철대차를타는것이 제일 편할것입니다 그러나 못처럼 침대차를 삿드래도 타는 묘리를 모르고 타면 별자미가업스니 다음의 몃가지 주의를 참고하십시요

◇

몬저 머리두는방향부터 말하면ー우리가 배나엘레베이터ー를탈때 올라갈적보다 미트로 내려갈적에 기분이납버지는원리에 비추어서 침대차탈때는 머리를 기차가는방향으로두십시요 침대가 여프로된것이면 머리를 철정으로나 뒤로두지말고 가는쪽으로누십시요 그다음에는 열차의 흔들리는것인데 열차는 열호로 흔들리니까 침대는이두모양으로 기리로 되것보다 열호로된 상등침대가 편합니다 왜그러나하면 우리가 배특탈적에 경험하는바이지만 기리로 누으면 더기분이납버집니다 다음은 침대의위치인데 이등은 대개 아래우층 두층으로 되여잇스나 삼등은세층으로 되여잇는데 우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흔들림은더려 위험도합니다 엇잿든 차의중심(重心)이 가차운곳 즉맨아래층에 눕는것이좃습니다 그다음에는 가튼한차간에서도 양쪽끗이조호나 한복판이 조효나하면 몸은 한복판이좃습니다 왜그러나하면 바퀴와철로길이 맛다어서 울리는진동이 직접 몸에 오지안는까닭입니다 현재의 철로길은 다소 울퉁불퉁한편이라 기차의 속력이빠르면 빠를수록 짜르르하고 몸에울리는것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 울리는것이 려행하는사람을 몹시 피로하게 하는것입니다

◈사진은

『난집에서동경류학보내준대던어느학교시험치를테냐』『집안에 드러안께되엿단다』

우리차지

쿵쿵 절구질
언니새얼 떡절구
찹쌀너쿠 찌어라
튄다 튄다 금싸락
멥쌀너쿠 빠어라
난다 난다 은까루

글손사람 (박치호)

家庭醫學

변비증이심하오

문 금변이 십이세미혼남자입니다 모사건으로인하야 일년삼개월간을 감방생활을하다가 신경쇠약증에걸리여 치료중보석출옥하얏습니다 출옥후로부터소변이보통보다적고 대변은삼일에한번식보며 배가창하고 음식을조곰먹으면 갑븝니다 하로에네번식먹어그먹는분량은 조곰과한듯도합니다 이것이무슨병입니가 가세가빈약하야 약사먹을도도업습니다 자가치료법과 치료중음식에 대한주의와운동정도등을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洪原苦痛生)

답 생활상태가 급작히 변동이되면 당신과갓치되는 증세를 발하게됩니다 즉음식과생활모양이변한관계로 변비증이발생된것입니다 대변을매일한번식 보도록할것이오니 공복에매일아침마다 랭수를한잔식마시여보시고음식은담박하게 식물성을 취택하시고 운동은과격치안케 하실것은물론이며 혹은 식염수를하야(야사파센트)마심도조켓습니다 하로에 네번식식사난과하니 식사하는분양을 주리시게하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新映畵 第三階級

마가렛 사라반 떠글러스몬고메리 主演

현대 독일의 한소시민을 주인공으로 월급쟁이의 비참한 생활을그린 영화이니 이것은 월급쟁이가아니면 자미잇게보지못할것이다 이영화는(第七天國)을감독한보싸기의작품으로 관자의가슴을 찌르는데가잇다 (鬪成社上映)

春風 (18)

夕影 作·畵

경숙은 또 말을계속하엿다

『그런고로 오늘이사은회는 교장선생님과 또 여러선생님들을 모시고 깃븐시간을 가저보자는것이요 자ー이제는 순서를따라 진행하겟지만 이번변치안흔 좌석에 아모준비도업시 여러선생님들을 오시시사고하여서 최송합니다

이리하야 사은회의 순서를밟게되엿다

졸업반에서 노래잘하는 캐나리아라는 별명을 가진 녀자가사은가를하고 또한녀자가 나와서 풍금으로 비곡을타고 그다음으로 영옥이가 사은사를하게되엿다

아래위를 하ー얏케차린 영옥이가 자리에서 이러서서 연단편으로가서섯다 전등빛에 그의자태가 휘황하게 빗낫다 그는예를하고 얼골을반드시 가지고입을여럿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영옥이에게로조앗다

『제가 이런좌석에서 외람하게 말슴을 엿줍게된은 너무나당돌합니다만은 저희들을 가르키시고 길러주신 여러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할때 감격한늣어지며말슴드리랴고합니다 저희들이 이빈약한순비로 형식에지내지못하는것가튼 이사은회에 선생님들을 모시게된것은 퍽 붓그럽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들의 자라는힘대로 한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선생님께서도 길히 용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은 가라야 빗치나고 쇠는달구워야 강하다는것과가치 사람도 지식으로닭구고 덕으로써가려야 갑시잇는것입니다 우리들을 빗나게하시라고 갑이잇게하시라고 애쓰시며 가르키신 우리선생님들의은혜는 바다로나 무엇으로나아모리크고 깁흔것을갓다가라도비유할수업는 큰것입니다 그러면선생님들께서 우리를 빗이나라, 갑시잇서라하고 가르주신것뿐아니라우리들의 가정에 사회에 나아가서 그가정 그사회를위하야일을하고 그가정 그사회를빗나게하라고 하심에 우리들 교육하신뜻이잇는것입니다

자ー우리는 이제가저에 대해서나 사회에 대하야서나 체험이업는천둥벌거숭이들입니다 이천둥벌거숭이를 내여보내시는 선생님들의그녑려는오죽하시겟습니까 모담도 더하실것입니다 여러는 선생님깨서가라키신길이잇습니다 이길을이줄가하고근심하시는줄입니다 우리가지금 이좌석에서 그은혜를보답하라는것은너무나우수운일입니다 인모힘는 만 은사들의압흘떠나는 고별의 시간에지나지안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들이 그큰은혜를보답한다는것은 래일부터우리가 어떠케하느냐에잇습니다 즉우리들이 가정에 사회에나아가일을 하는데 달린것입니다 여러선생님께서우리들을 가르키시며 기르실때 여러가지 괴로우신일이 만호섯겟지만 우리들이 참사람이되기를 바라시고 사랑하시고 지도하심에대하야 졸업생일동을 대표하야감사를드리는것입니다』

영옥은 조금말을쉬어섯슬때 여러사람은박수를하엿다

『선생 저희들은갑니다 저희들이 가게되오니 정든학교의모든것이 떠나기가슯습니다 이긔숙사똘에 수양버들 그것은 겨울을때여노코는 늘ー푸를것입니다다우리들이심은 운동장의 포푸라아까시야, 향나무,진달래,또는우리들의손길에길드른 운동장의목마,그네,모든것이 눈에걸리고맘에걸립니다

시간마다 백묵과 출석부를들고 반에드러오시는 선생님들이 눈에 선ー합니다 수학여행,원족,학예회, 이것들도 긔억이새롭습니다 여러분 졸업생중에는 상급학교를 가실분도게시겟지만 만히는가정에나사회에 나아갈것입니다 이분들은 이학교의 그모든것을일흔것니다 늙어죽을때까지 그긔억을부등켜안고 옛시절을 그리워하고 슯어할지모릅니다 여러분중에는 시골게신분에게신분은 이학생시대의 꿈놀이만흔것입니다 더구나쓸쓸한곳눈만 감으면 꿀것입니다 동무를우리는이학교를 떠나야만 하게되엿습니다 비록상급학교를 가시는분이라도이녀고보시대는 한때입니다 꿈만코 순진하고 다사러운 그시절은 한때입니다 우리는그아름다운시절을 영원히일허버리는것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어질고, 신비스러운것만생각하든때 그것을일허버리는것입니다 다 인생으로써 제일 조흔시절은일이갓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할것입니다ー결혼을 아니하고 다른일에 나아갈분도 게시겟지만ー결혼만하면 아이를 어머날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처녀시절의 우리, 결혼한후의 우리 어머니로서의 우리는 다ー다른 우리일것입니다 사실녀자의 일생은 비참그것입니다 그러나결혼에는 사랑이잇는결혼, 리해가잇는결혼이 아니면 더욱 비참할것입니다 녀자의일생은 죽기위하야 사는것갓습니다 말슴이 좀 탈선된듯합니다만은 끄트로 여러선생님들께 모든것을 감사할따름입니다』

라디오

三月二日 (土曜)

◇午後六時童話 一、齊唱봉소식 二、齊唱무지개 三、獨唱꾸짓 (維玉基) 四、齊唱개고리 五、齊唱도적쥐 六、獨唱갈납배 (姜順愛) 七、獨唱해비은것 (鄭順鳳) 八、齊唱까다잡기 九、비누풍선 十、獨唱할머니편지 (金貞任) 十一、도는것 (金貞任) 十二、齊唱자장노래 伴奏 綠羊會 洪蘭波
◇同六時二〇分 兒童週間新聞
◇同六時三〇分 齊術復習講座 (十三) 李俊興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 (五) 金雄琛
◇同八時 俗曲 一、平壤歌 二、사발가 三、자진博物歌 四、아리아리랑 五、唱夫打鈴 孫錦紅 大笒奚琴 李忠善 細笛 姜學洙
◇同八時三〇分 古談 申鼎言
◇同九時 피아노獨奏 一、자장가 作品五七 쇼팡作曲 二、왈쓰 作品七〇의一番 쇼팡曲作 三、夜想曲 作品三十七의一番 四、歌劇『리골레토』리스트編曲 金禎湘

三月三日 (日曜)

◇午後〇時五分 氣像通報
◇午後〇時五〇分하와이안기타ー音樂 一、알로하那그대를사랑함 二、듸스크립틔브훌라 三、하와이의밤 四、나는엇때 五、루젤라이 六、훌라훌라메들레 七、나를잇지마오 張明浩 宋敬煥 孫渭波
◇同六時 이야기『히나마쯔리』에對하야 成義敬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道德과經濟 安寅植
◇同七時五〇分 歌曲 一、界面興致平擧 二、界面興致頭擧 三、弄 四、界樂 五、編 安鶴仙 金花春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二〇分 라듸오 드라마 로보트와月光 全二景 (配役) 사나히 A……李翼 同B……梁在城 女子……朴銀姬
◇同八時五〇分 名曲鑑賞 (레코ー드) 歌謠 一、오랑캐꽃…모ー차르트作曲 二、魔王 슈ー버ー트作曲 三、노래의날개를타고 멘델스존作曲 四、두名의擲彈兵 슈ー망作曲 (솔루스누스) 解說 朝鮮音樂家協會 李鍾泰
◇同七時三〇分 南道歌謠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吳翡翠 金素姬

三月四日 (月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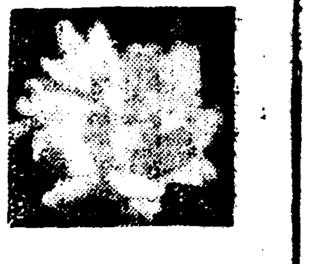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 古談 大盜 愼麟範
◇同二時 趣味講座 東洋畵의이야기 (一) 金殷鎬
◇同六時 이야기 (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제비다리 尹白南
◇同六時二五分 產業뉴ー스 經濟解說
◇同七時三〇分 講演 新興滿洲國을보고 朝鮮日報主筆 徐椿
◇同八時 流行歌(레코ー드演奏) 一、愁心歌와역금 二、山念佛 三、寧邊歌 四、中巨里 五、자진난봉가 金玉葉 李眞鳳
◇同八時一五分 西道歌謠
◇同八時四〇分 (東)管絃樂 베ー토벤連續演奏(第三回) 交響曲第三番『英雄』 第一樂章알레그로콘부리오 第二樂章葬送行進曲 아다지오, 앗사이 第三樂章스케르쪼 알레그로비바ー체 第四樂章 終曲 알레그로몰토 日本放送交響樂團 아우그스트, 윤, 켈

曆

三月三日 (日) 舊正月(小)二十八日 戊寅·土·星·建

◎裁衣·上樑辰時·納財·安葬에宜함

▼立春五日(舊正月二日)
▼雨水十九日(舊正月十六日)



史上에나타난 藝術家의群像 (15)

湖岩

新羅名筆 金陸珍

東方書道의 淵源이 金生에서 發하엿슴으로 名筆을말할때 반드시 먼저 金生을 列擧하게되나 그러면 金生다음가는 名筆은 누구나고 무를때는 對答이 제각기 다를것이다。

그러나 年代의 오랜것으로나 新羅藝術의 遺品것으로나 新羅에 잇서서는 金生다음에 金陸珍을 꼽지안흘수 업다。

金陸珍은 東國史에 失傳이되어 行蹟이 仔細하지안흐며 다만 唐書에 依하야 그가新羅哀莊王九年(西紀八〇八)에 遣唐使節로唐나라에 갓든事實이 겨우 알려질 뿐이다。그러나

金 陸珍은그의 남긴글시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그이름이 流傳하게되다

오늘날 남아잇는 그의手蹟으로 거의唯一이요 가장有名한것은 慶州鍪(무)藏寺碑이니 이鍪藏寺碑도 말하면 金陸珍의撰述書이다 이것을 世上에서 或은金

그러나 그碑에 적혀잇는 事實에 依하야 그것이分明히 金陸[illegible]生의碑라고함은 誤傳이다。好古家사이에 珍重하는바되어 예로부터 搨本도 만이하엿다 그러나 歲久年深함을 따라 寺가 문어지매 그碑도 무치게되어 오래동안 存在를 몰랏다 그러더니 英祖年間에 洪耳溪良浩가 慶州府尹으로 갓슬때 耳溪良浩는 본대金石에 뜻을 둔이라 古蹟을 探訪할새

鍪 藏寺에잇는 金生書碑가 埋沒되엇다고하는 故老의말을 듯고 그寺의遺址에가서 林莽사이에 무처잇든碑의 半身을 차젓든데 적어내서본즉 과연鍪藏寺碑다 珍의書요 金生의書는 아님을알엇다 故老들이 金生의書라고함은 傳聞의잘못이다 그리하야 洪耳溪의努力으로 金陸珍書碑의 몰어진半身을 오래간만에 찻게되엇다 다만 그남어지 半身만은 어데간는지 찻지못하고 여러十年을 지내서 純祖丁丑에 이르러 東國金石大家

金 秋史에게依하야 그碑의 다른一鐵이 마저發見되엇다 이때秋史는 거츠른 林莽中에서그 碑半身을 發見하고서 너무나喜悅함을 의이지 못하야 크게소리를 질럿다 이에年前耳溪의發見한 碑半身과 이때秋史의發見한 碑半身을 서로 聯合하야비로소完全한 金陸珍書碑를 일우웟다

그러나碑의前面은 글자가 그대로 잇스나 後面은 寺僧들이 멍을로使用하엿슴으로 文字가아주 磨滅되고 말앗다하니 이것이 일은바 [illegible] 自己寺院의

實 物을 自手로破壞하는그네들의無知야말로 차라리 憫笑할바다。이碑의書品에 對하야秋史는 評하기를 오히려 金生의右에 잇다하고 新羅以上이라고하엿스며 洪耳溪는 名家數方하는 一大客寶를 삼아特히 珍重하엿다 東國의金石文치고서 이碑처럼 中國人에게 推獎되는것이 업다고 한다。

洪耳溪는 일즉歷代書家를 評한一節에갈우되『金生의筆은 奇崛奧妙하야 古人을 스승하지아니하고 스스로 門戶를 열엇다 그러나 그神骨이 獨到하야 二王과

暗 合함으로 크게 趙子昂의 推服한바 되엿스며 그後新羅에는 金陸珍과 釋靈業이잇서 泓[illegible] 筆法을 배우고 釋靈業은 歐陽詢을 스승하엿다』이로보면耳溪도 金生의다음에는 金陸珍을 꼽앗다 그러나 金陸珍과 釋靈業은 어떠한書家이냐 하면 金陸珍과 거의同時에 잇든僧侶로 그의書法도 金陸珍과 거의 倣似하다 新羅神德王四年(西紀九一二)에 建立된 [illegible]에 세운 [illegible] 後代의書家들이매우 稱贊하는바다

姚 克一이 잇스니 벼슬이 侍中에 이르고 當代의 名家로 비록金生에게 미치지 못하나또한奇品이 되다고 三國史에는 稱하엿다 다만 그의書法이 그後人인 崔致遠과 한가지로 歐陽率更을본떠다만치 金陸珍과 釋靈業과는 다름뿐이다。

文藝批評의基本概念과 評家의教養問題 (二)

―主로朴泰遠氏의時評을論함―

嚴興燮

다음에 君의 作品評을檢討하기로하자。

君은 玄民의作『金講師와T教授』(新東亞一月號)에잇서서 作品全體를論하지못하고 作家의意圖를究明해보려하지안코 다만 部分的으로 나타나는 文章의 험집만을 들어서作家를攻擊하엿다

『金講師와T教授』는 玄民의最近作으로서 그의舊作에比하야그다지 뛰여난作品은못되나 그러나 이作은 主人公金萬弼이란 朝鮮에흔이잇는 젊은인테리의動態를 어느程度까지 成功的으로 暴露한 퍽 싸―늘한레아리즘의 作品인데도 不拘하고 君은다만 우에서말한바와가튼 用語評만을압장세우고 作品의本質에는 敢히한마디의 可否도 論及치안엇다 即그것은『……히히낙낙 하게 교문을들어오고 잇섯다云云』의 히히낙낙을 낡은舊式文章이니쓰지말나는둥『…얼골을빼루러트린웃음으로…』하엿다고그것을 말이鄙하다고 責한그것이다그리고結論을말한다고하고서는『―나는이作品을 낡고나서 꼭끄집어내여 말할수업스니(傍點筆者) 이것은決코『小說家』의作品은 안이엿다』라고한말은 도대체 무슨意味의말인지 무슨말을하려든 것을못하고이러케우물주물하엿든지 君의 大膽치못한性格을 우리는切實히 늣길수잇지안은가?『이것은決코小說家의作品은 안이엿다』란말따위는 더구나 諒解해야할言辭가안일가?

그다음 君은 姜敬愛氏의『母子』(開闢一月號)를評하는 態度에잇서서 또한玄民의作을 評하는 그方式을 꼭 그대로 가저끼웟다

『母子』는 그다지成功한 作이라고는 볼수업섯다。作品全體의 構想이 좀不自然스럽다느니 보다도 漠然한 概念的인 表現部分이만엇슴으로 (이것은 作家가構成이라難關을通過식히기爲한 엇질수업는 初期的手段이엿슬줄아나。作家의意圖가豫期한바의그作에대한그效果는讀者에게 그다지 큰것이못될것이엇다。그러나 우리는作家의意圖만은 否認하지안을수업다。그는闘爭보다는 人間의貧窮相을그리려애썻고 그보다도 一步前進하야어떤 새로운그림자를차지려햇다。即作中人物『승오어머니』가그남편승오아버지를차지려 山으로간다는것、비록그것이槪念的이漠然하나마山에서 山으로살고떠다니는 그의남편의그린사를作家는 왜? 차즈려햇나? 이것은 비록 君의말한바 이作家의그描寫한文章가운데라하지만은 가장엄숙하게强調되여잇는部分이안이엿든가!

『나는爲先姜氏에게創作에對한基礎工夫를하여주엇스면 얼마나조흘가하고생각한다…』하고君은갖조로 이런말을 하엿다

이런言辭亦 玄民의 部分에서말한바와가티 가장삽가할말이 안이면 안되다

그다음君은 나의拙作인『惡戲』와『純情』을 手術臺에 올려노앗다 나는 먼저말하여두거니와 나의作品이라고 辯明하기는실타。다만君의그評的態度가 마치 幼兒가 解剖刀를가지고 手術臺에 뛰여올라간것가튼 危險을犯한것만을 말하고저하는바이다。

君은첫번에『嚴氏의作品에서우리가恒常 늣기는것은 그談說그描寫가 퍽오나 散漫하다는것이다』라고말하엿고 그切實한例로서는『惡戲』와『純情』두作品을 든다고하엿다

그리면서도 맛당히指摘해야할 그散漫하다는 한토막의 具體的 立證도 보이지못하엿고 또한作品中에 不必要한部分이 넘우나(或은完全히)만이잇다고 하면서도 如前히단한마듸의 指摘도업섯다。

作品中에잇서 어떤潛在되여잇든偶面 即其潛在意識이 어떤外部의刺戟이나必然性을 띄우고突然顯在意識으로 變革될때 그것은 偶然的으로보기쉽기때문에君의말한바 不必要한部分이라고非難박기도 怪常치안은바라하겟다

隨想 歸鄕 ❷

李源朝

그러나 十年동안이나 이저버렷든故鄕을 이제 도라가지안코면안되게되고나니、일직이 내머리人속에 棲息하고잇든 수만흔幻想의푸른새색기들은、맛치 가을이짓터가면 아모말업시 넷집을버리고가는 제비들과가티 하나식 둘식 그림자를감추는것이다。그리고 저녁나절의밀물가티 숨어드는 鄕愁는 도라갈날이 하로식하로식갓가워올사록、나로하여금 焦燥하게하는것이다。

일즉이 읽은、장、콕토의『阿片』이란手記가운데 阿片中毒者의 阿片을피우고십흘때의情景은 맛치 託兒所의 수만흔어린애들이 젓먹읏참이되여도 그乳母가 오지안는것을 기다리는 크다란沈黙과 갓다고 하엿더니 오늘날의 내가도라가고십흔생각을 武君、콕토의表現과가튼말을빌린다면、그것은 맛치 형님들에게업혀서 江가에갓다가 젓먹읏참이되여서 어머니품속으로 도라가고십흔焦燥와도가튼것이다。그래서 이려한 焦燥한생각을 나는 아모리反省해보아도 내마음의어느구석에서 울어나온것인지 나는 알수가업는것이다。지금에 이러케잇서도 어느한사람이 유달리 보고십흔것도아니고、내가 도라간대야 어느반가운일이나를 기다려고잇는것도아니다。그러면서도 도라갈길을 손곱아헤아리는내마음― 내마음속에 숨어잇든 내가모를 요사스러운내마음이 맛치 反亂의兵卒가티 때를 고이려나는데 나는 도리허 [illegible]히 기도하는것이다。그럼으로 이려한내마음의反亂을 이때까지 내가 내自身을찻느라고 抑壓하고 禁斷하여서 고개를들지못하엿든 내懷鄕心이 오늘날 내意志의가 장[illegible]해진틈을타서 一時에 일어나는 反亂이라고할가? 그러타면 이렇듯이 뿌리깁흔 懷鄕心이란 흔이 政治的意圖밋해서비저내는 그 危險한 理論의 根據가되어잇는 사람마다의本能인것인가? 여긔에서 나는 이것을 [illegible]할必要를 늣기지안는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焦燥를늣길때는 오히려 나는 그『不幸한幸福』을享有한다는刹那 인것이다。그러나 나는 다음瞬間에 그 獨逸浪漫派詩의先驅者이라고하는 不遇詩人 헬데룽의『故鄕』이라詩가본데서

漁夫들은 깃부게도 도라가네、고요한물결우를、
만흔收穫을싯고 머나먼 섬(島)으로부터、나도인제는故鄕으로도라갈가보다。
그러나懊惱를가진박게、내收穫은무엇인가?(『近代詩人集』속에서摘譯重譯)

하는 一節을 생각할때 이詩는 넘우나 얄미웁게도 내신세를 읊흔것갓해서、이때까지 期待와焦燥가운데 들떳든 내마음은 卒地에 澱粉과가티 까려안고마는것이니 이러한 나의歌歎의急激한變動은 맛치자지러지게울든어린애가 무심결에몸시빵을마지는것과도가튼것이다。그래서 나는차라리 이따위詩(눈깜은헬데룽이여 나의밥악의 아이로니를 容恕할지어다!)는 이저버리는것이나으려니하나 이즈려면 이즈려할사록 이청성스러운詩는 맛치어두운밤길을거를때 짓궂게聯想되는惡魔의낫작가리 내머리속에서떠러지지안는것이다。그래서 이려한焦燥와 落莫의그지업는反發가운데 나는조작고만 가는것이다。그러니 아마 내가 故土에첫발자욱을옴녀노흘때에도 이焦燥와落莫의反發은긋치지안흘것이며맛치내 우리집문깐에 발을드려노흘때에도 이러한마음은달너지지 안흘것이다。

그러나 맛치 그 앙드레、지드의『蕩子의歸宅』이란小說가운데의 蕩子가『내가누구이란것을 알기위해서 그리고 祖先에게서 傳襲하는 財寶以外의 다른것을 엿보기위해서、일직이 出家를 하엿다가 맛침내 아모것도 發見하지못하고 그냥 疲困해서도라왓다』는것과가티、그리고 그아버지와、어머니와、형님에게 讒責을듯드시내가집에도라간다면우선 어머니의 强從하는 깃붐의우슴속에서

『너 무엇을가지고왓늬? 너짐속에는 무엇이드럿늬?』

하고 무르실때、

『懊惱를가지고왓세요』

한다면 그때에 나는 어머니의 흐려지는 얼골을보지안흐면 안될것인가? 그리고 맛친내우리어머니가 늘쓰시는

『너들에게도 또속는가부다』

하는 쓰라린말슴까지 듯지안흐면안될것인가?

春街所見(3)

陳列窓이 보히는 봄

現代人間心理의反映인商店心理

道令아가써웃는얼골봅시다

商人들이보는봄은 陳列窓을보아서알것다

더구나 서울의 朝鮮사람의商店陳列窓中에는 얼마나非常識的인 色彩配置가만흔지모른다 큰百貨店이 란데서도재商店의 商品의運命을 左右할수잇는쇼윈도우『裝置하는藝家의 報酬가 창피하도록低廉한대신에 또廣告에너저본한테만 돈을처드리는줄도잇다

이봄의 그들의陳列窓은? 勿論 잘햇슬것이다 勿論 이봄의人間들의눈을어지럽게햇슬것이다 그러나 어느곳은 十年이그장식인데도잇다 아모래도장사만 잘되면 무엇이랄이되랴

◇

멀리보히는것―

그럿타 갓가히陳列窓을드려다보는것보담도 멀리서 희희지나가면서보아도 보히는陳列窓이여야될것이다

이리드려오시오

이리드려오세요

그러케손짓하고꼴려드리지안허도 그陳列窓이『윙크』를해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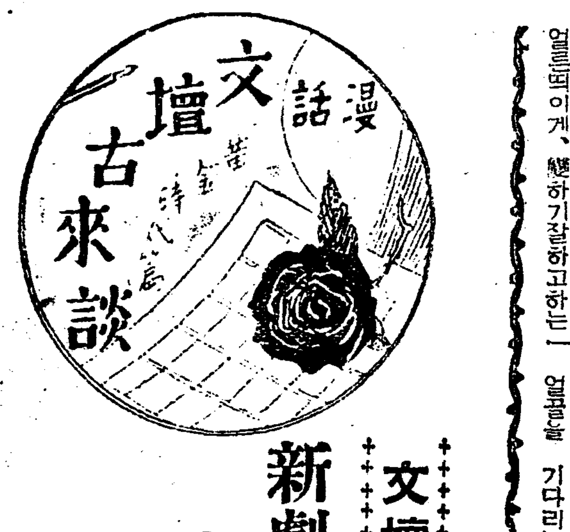
◇

그럿지 봄의陳列窓은 길거리에사람들에게 윙크를하는것이다 그것은 봄의윙크다

고달픈 봄사람의 거롬을 쉬이게하고 또그맘을 끄러잡어다닌다 이것은 능난한 솜씨로 꿈여진때의 이야기다 요새사람들의 하는짓은모두가 陳列窓式이다 번주그레―하게 얼른띄이게、蠻하기잘하고하는

그것과가치 現代商街의 陳列窓現代人間의 象徵이다 봄의 陳列窓! 道令! 아가씨들의웃는 얼골을 기다리는가?

―캐메라로 본봄風景―



漫話 文壇古來談

文壇에사러진挿話 新劇運動으로첫烽火 土月會公演과女俳優難

『白潮』雜誌를에워싼秘話

⑨ 路傍草記

東京震災가 잇슨해東京

에서組識된 土月會同人들이 와서『白潮』雜誌社와 合同을하야 朝鮮의文化運動을 하기로하고土月會第一回公演을 朝鮮劇場에서 열게되엿스니 土月會側에서는延爵年、朴勝喜、金復鎭、金基鎭、崔虎永、李瑞求、其他諸氏요 白潮에서는 同人全部와 이外에李泉、李素然氏等이 加擔하게되여 第一回公演을 하엿다

이때는 너무도 朝鮮에잇서서 高級이엿든지 文學人이나 演劇人에잇서서 初期의企劃이엿섯든지劇本이 너무도 單調하고 高踏的이여서 第一回公演은 大失敗를하엿다 그래서 土月會諸氏는出演主요 同人인 朴勝喜氏에게

物質的으로 큰損害를주

고 또한편으로는 너무도 朝鮮의觀劇大衆을 無視한態度잇서서第一回公演으로 朴氏의損害를挽回식혀주고 興行으로서도 成功을하고자하야『復活』(일흔·하이델베르히)를 上演함으로 먼저人氣를끄러보자고 合議되여 第二回公演의幕을열게되엿다。

◇

그런데 第二回公演의幕이 열리기前에 이야기를아니할수업다 그때나 그때나 女俳優難으로 第一回公演에는 바람가리나타낫다 사려진―李貞守孃이 女優였스나 第二回에는 조금大衆的으로 方向을고친만큼

그래도舞台 經驗이잇는

女俳優를 모서오자하야 먼저李月華를交涉하기로되엿다 그래서交涉委員이 八峰、夕影으로 되여 派遣되엿다 두사람이 다수집어하는이라 구지사양하엿스나 會員全體의 意思에드되여 驟雨中에 人力車를타고 李子楠平대이를 간다 한참만에 차즌집은땅에 처부튼 이야말로오막사리엿다

『朝鮮의스타―의집이이래서야』 그두사람中에 한사람이한말이다

『이리오너라―』

퍽서투른소리지만 두사람이갈려가면서 레노――『와빠리론』音聲을 섞거서불럿다

『누구십닛가』

하고나오는 그美人이 月華다

微笑를띈그 女子는픽疑

許한낫으로 雨中에온사람을빤히치어다본다

『李月華氏십닛가』

『네―누구신지요』

『네―저는 土月會사람입니다 土月會아시겟지요? 좀相議할일이잇서서왓는데요』

『네―그서요 어서드러오서요루추합니다마는』

月華는 눈치를채엿는지 다시웃지안코 집으로끄러드린다

그들은 띄고온用務를말하고 土月會는 어떠한것이라는것、참정말東京留學生과 文人들이모힌新劇運動團體라는것 또는將來方針等 느러놋코女俳優되기를 勸하고 급하니오늘밤부터演習을하러 오라는것이다 書生風의 이然交人들은 그저 女子라純眞하거니하고만미덧든지

自己들의意思를느러노

핫스니

『네―감사합니다 저가튼것을그런큰團體에서 부르시려 이비오는데 오시기까지하셔서요 그런데 우리어머니께서……』

그말은 자긔어머니가 계집애가 사나히틈에서 演劇이무에냐고 늘꾸지람을하고 따리기까지 함으로 承諾할수는업지만 당신들가티르신분은 달리 보히는데가 잇스니까 어머니께 절을하고懇請만하면 自己도 뜻대로 舞臺에나설수가잇다는것이다 이女流策士(?)는 이두 純眞한사나히들을 戲弄해보렴이아닌지모른다 이들은 그저 창피大창피를보드래도 나오기만하면 된다하고서 절을하기로되엿다 四尺四方인房에서 六尺靑年이 꾸부리고절을하는光景을보고 月華는『아차내가罪를짓구나』하고 마음으로후회햇슬는지도모른다

文壇

빰마즌記錄 (上)

黃載健

치선영감은 봄철세때부터 보고 또는 올라다니든집압 나무와가치 커서 늙어왓건만 쌈이라고는 하여보지못하엿다。혹시누가 씽할려고 덤비면 자긔가 올튼 글튼인마 쌈는 고까진데……내가잘못햇다』하고는 될수잇는대로 피하엿다 그래서그는 빰이라고는 한번도마저보지못하엿다 또그것이 그의한자랑이엇다 그려나그는 작년욕려섯달그믐날고만자긔의자랑꺼리를깨치고말엇다 평생에처음으로 빰을어더맛고만것이다。작년누워낙 흉년인데소작료를바치고나니 나머지쌀은 열섬이가까워오자 외아들쇠돌이는 매엽 양복을 사달나고 졸르나 쌀팔생각도 나지안코 도울수도 업섯다 섣달스무아흐레날저녁까지생각다못하야 남이보지안케쇠꼴이를다리고、봉구재고개로 갓다 그리하야 부자가 이마에땀이 철철나도록 줏고 꺽고하야 오라지안어 손등에소나무가지를 하나가득실엇다 영감은 남에게 들킬까봐 쇠돌이만 도로보내고 자긔는곳 서울로달렷다 서울장안이밝기도전에 영감의나무빠리는 이거리저거리를 짜매고잇섯다。

언젠가동내젊은사람들의말이 그만한나무를 가지고오면 적어도 삽사원은 밧는다고햇스니까 그만한돈이면 자기손으로드려울 생각을하고 무엇보담도기운이낫다。

날이밝고 점심때가 지낼때까지는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에 시간가는 줄도 몰랏다「사원을밧어 이원은 쇠돌이양복을 사주고 오십전은 고기를 사고 나머지는 가지고가서 떡국이나 하면 얼마남겟지……」혼자이려케 생각하얏다。영감은 그전그전에 한번 남과가치 닭알을팔려왓든 기억을따라 이리저리 소를골엇다。

그러나 두시가지나 세싯쯤되자 점점 궁금증이낫다「누가 살려고 하지안나?」그는 사람들얼굴마치다보앗다 혹시 한적식나무를 보다가 가는 사람도잇고 갑만무러보고 어이업다는듯이다라나는 사람도잇섯다「원 자리가 납빼서 그런가?」하고 영감은 또 딴곳으로갓다 해가젓다 영감은 점점 몸이달앗다。

「여보 얼마요」절문사람이 비틀거리며 가까히오더니만 소리첫다

「예 삼만원 주시유」사원을 달라고 할려다가 이원 삼원만 달나고햇다。

「일원만 바두」

「그러면여보시유 이원오십전만 주시유」

「일원에 팔테면팔고 그만둬」

절문 사람은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드리갓다。

「원 망할놈가트니……」영감은 한숨쉬고 길엽 나무싸어노흔곳에 걸터안젓다 화가 부륵부륵 올러왓다「원 오래간만에 만난것이……」하고 구두덜거리엇다 아침에 우동사먹은배가 몹시도 시장하엿다。주머니에남은 오전짜리를 주물르며 한그릇 더 사먹을까? 말가?」하며숭숭설이는판에

「이나무 얼마에요?」하며 갑은 얼는일어서며

「이원오십전만 주시유 좋은것이 아츰부터 도라다니는데……」

「아이구 팔십전으로 해요」부인은 영감생각두스스며말햇다。

영감은 뻔히그부인을처다보앗다。이원오십전을달라는데 엇재 팔십전으로불려주달까하고의심이 낫든것이다。

오늘의常識

氣象의變化 [三]

生活上必要한이常識

七、溫度

空氣中에는 늘若干의水蒸氣가 들어잇다。萬一그水蒸氣가만흘때에는 溫度가크다고하고 그反對로水蒸氣가적을때에는 溫度가적다고한다。그러나 空氣가水蒸氣가늘어잇다고하더라도 거긔에도 一定한制限이잇스니 마치물에사탕을타는데도 制限의分量이잇서 그分量以上은 沈澱이될뿐이요絕對로녹지를 안는것과갓다。단지 氣溫의差異와한께 水蒸氣의包含되는 分量도작구變하는것이니그 역시마치따드거운물은 찬물보담좀더만흔分量의砂糖을녹이게되는것과갓다。그런데零度의氣溫에는一立方米中 水蒸氣를四瓦八以上더包含하지만 十度에는 九瓦三을 包含하야 約二倍의多重을보이게 된다。何如튼 氣溫의各度를따라 各各水蒸氣의包含되는 極限이 잇는데 이極限을 水蒸氣의極度이라고하고 極度에達한水蒸氣를 飽和空氣라고한다。元來濕度는七十度가량이 가장人體衛生에適當하다。萬一五十度以下에이르러 呼吸器病을이리키기쉽다。

八、水蒸氣의凝結

飽和空氣로부터 다시남는水蒸氣는 어떠케水蒸氣의形態대로잇을수가업는것이라 고마물이되야 버리게되다。그것은水蒸氣의凝結이라고하는것으로 空氣中의細塵이나이온을心核으로삼아 조그만물방울을이루는것이다。

(1) 直接凝結、空氣自身이直接外界로熱을放散하야 차지거나또는찬물건에 부드치어 갑작이 차질때 凝結되는것이 直接凝結이다。그와가티樹木의葉의空氣가차저서 물방울이되는것을 이슬이라고하고 零度以下의氣溫아래 그이슬이結晶되는것을 서리라고한다。

(2) 混合凝結、한空氣와더운空氣가交流되야 더운空氣가차질때 凝結되는것이 混合凝結이다 그와가티 海上은勿論 地面上에서도凝結되는것을 안개라고하고 零度以下의氣溫아래 그안개가結晶되는것을 어름안개(氷霧)라고한다。

(3) 膨脹에依한冷却、前記두가지의凝結은 冷却의程度가 대단치안한것이니마큼 이슬乃至안개의 程度가되고마는데지나지안는다。비나눈이나리도록되자면 아모래도 이膨脹에依한冷却을기다릴수밧게 업다。

漢詩

碧梧山人考選

春雪 〔選外三〕

北靑 李柱眞

瓊屑撓空序屬春
東風噓白入窓茵
潤芽孳重花先蒨
岸柳堆寒絮更新
落地遊魂氷化水
在天本色玉飛塵
沽衣沒屐何須惜
吾亦西疇有事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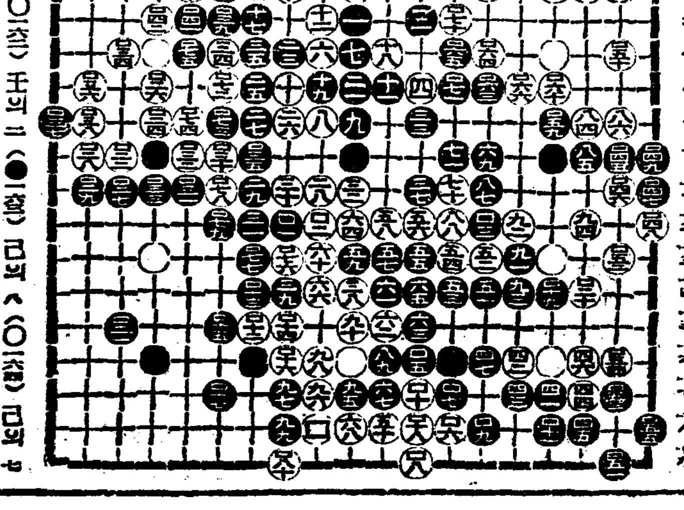
漢詩募集

題『春雨』 押 知 限 三月十日

圍碁對局譜 (十四)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 李命輝



(●[illegible])辛의四 (○[illegible])壬의二 (●[illegible])己의八 (○[illegible])己의七
(●[illegible])庚의七 (○[illegible])戌의八 (●[illegible])辛의三 (○[illegible])辛의二
(●[illegible])己의三 (○[illegible])庚의六 (●[illegible])庚의八 (○[illegible])卯의八
(●[illegible])卯의九 (○[illegible])辰의九 (●[illegible])辰의七 (○[illegible])丑의十二
(●[illegible])寅의十三 (○[illegible])卯의十一 (●[illegible])卯의十二 (○[illegible])丑의九
◇死點(○[illegible])乙의十八

◇素雲文氏評日 ―全局 形便으로觀하면雙方에 急戰時期가 到來하엿슴으로 比較的立場에 未端收拾이 急務이다 白卯의八 丑의十三 卯의十一 이先手라 相當하고 黑辛의四 巳의三도 白을 應케함이 同一한 意見이다 總觀이 已備하고 丹陽이 旣成하니 若干 補缺이라도 不可不講이엇다

☆在東京朝鮮音樂家總動員!!☆

▽朝鮮樂界初有의大盛事

▽故土訪問巡廻音樂會

『時日』六月中 『地方』京城、大邱、平壤

『樂士』三十名（樂士氏名不日發表）

『主要演奏目錄』混聲合唱、絃樂四重奏、피아노三重奏、四重唱、二重唱、獨唱、피아노獨奏、첼로獨奏、봐이올린獨奏

▽其他詳細事項追後發表△

主催 朝鮮日報社

共軍李紅光一派 新房子附近에出現
情報를接한平北警察部서는 管下各署에警戒嚴命

【新義州】 공비(共匪)의 거두 리홍광(李紅光)의일파는 토벌군의 압박으로 점차오지로 드러갓는데 그일파중 동림호(東林好)가인솔한 대약삼십명은 토벌대의틈을 타서 정안으로부터 약오리의지점 신방자(新房子)에 나타나 그곳유재업자를 협박하야 군자금을조달케한다는 정보가잇서 평북경찰부에서는 동흥、초산(楚山)、중강(中江)、자성(慈城)각서에비상경계를명령하얏다한다

李氏의熱誠으로 梧柳學院擴充

【富川】 경인선오류동역전 (京仁線梧柳洞驛前)에잇는오류학원(梧柳學院)은수년전에 동리리성환(李聖煥)씨의열성으로설립되여 이래 무산아동을 다수교육시켜 오든바 허하는동시에 아동교육에 유감이 업슬만한 유자격교원을 초빙키로하고 보통학교와동등정도로 교수하게되여 아동의수도 백여명에달한다는데 일반은전긔리씨의 열성에칭송이 자자한동시에 동학원의 장래가촉망된다고한다

文化郵所新設

【信川】 황해도 신천군 문화면 (文化面)은 이전에는 문화군이엿든것이 군폐합으로인하야 신천군에편입되여잇는바 부근주민은 일반통신긔관의 불편함을 유감으로생각하든차 당시석주황(石柱璜)씨가 삼년전부터 우편물취급소를 경영하여오다가 지난일일에 석주황씨명의로 우편소가인가되여 동일부터업무를개시하얏다고한다

中學校授業料 無差別을主張

【仁川】 인천부립중학문제는근근준비가완성되야 도에서 보조를받아 금년신학기부터는개학 하게되야신입생 오십명을모집하야 우선 송현소학교 교실을빌려 교수하고 이화리까지 산근정(山根町)공설운동장에 교사를 완성하리라는바 이에조선인측에서는 조선인교육에는 등한하다는불평이 놉흔동 인천영정(永井)부윤은지난일일제일교육부회에서 다음과가티답하얏다한다

『부내에거주하는조선인에게는동일한수업료로 중학에 입학시키도록하자는의견이 제이 교육부회의원간에 잇섯고 내개인으로도 그런생각이 잇서 오늘그것을 제의하고십헛스나 이것은전연감정에 대한 문제로될것가틈으로 깁히고려할점이 잇스니 여러분도 십분고려하야 금번인천중학설립에 제하야 부내거주조선인에게 한하야는 동일한수업료로 입학시키도록 전선적으로 의견의통일를 듯게고려하시기를바람니다 운운

工費一萬二千圓의 第二普校大講堂
竣工式及記念音樂會

【全州】 전주초등교육긔관의오래인 력사를가진 전주제이보통학교(前全州에잇서 新敎育機關의嚆矢인 英學校後身)는 근천명 아동을 수용하야 오든동 매양강당이 업서서 매우유감으로 지내오든바 이에불만을느긴 학부형측에서는원측이 강당건축기성회를조직하고각자가 갹출의연하야모은돈이수만원에달하자 작년가을부터 공사에착수하야오든동 건평일백이십여평의 굉장한 대강당이 최근 준공되엿슴으로 동교에서는 오는 삼일오후일시에 낙성식을 개최코저 방금제반준비에분망중이라는데 동일 오전열시부터는강당건축기성회결산보고가잇고 이어서아동학예회까지잇스리라하며 밤일곱시부터는 음악회가시작되리라는데 금번출연할연사는 조선악계에 놉히일홈을 떨치고잇는 명사들이며 특히 남문밧 영생보육(永生保育)『크리크리』도출연되리라한다

三人組窃盜團 章竟事實을自白

【高陽】 고양군중면백석리상의농장 (三盛農場)에서 정조여섯섬을도난당한사실노 일산경찰관 주재소원이범인수사에 활동하든바 지난일일오전 여섯시경 역중면창항리(倉項里)장하여다고한다 서봉(徐鳳)(二二)과중면(白石里)편성국(片聖國)(二六)리면순재(片順在)를체포하야다가 엄중취조한결과 전긔 삼인은 공모하야 정조를절취하야 주범집에다가 감추어 둔것이 사실임으로 소관주재소에서는 본서로송치하엿다고한다

往復二千里의 仁川서釜山까지 無錢旅行한少年
實은窃盜行脚으로

【仁川】 부산에서인천까지무전여행으로 절도해각한 소년절도==시내화정(花町)일정목십칠번지 수는옥종덕(玉鍾德)(一六)은작년칠월에시내궁정(宮町)편리사 (便利舍)점원으로잇다가주인의회중시계를절취한후에도개주인의집에서십내리(內里)류모(劉某)의집에서 판매하얏스나 이후에 의심을 바든 구리 절도를 감행한사실이 잇서서 우리우종덕은 체포코자 하얏스나 그종적이 묘연하야 지난이십사일 오후구시경상인천 역전을배회 하는것을소관서원이 체포하야 엄중조사하바 에의하면 작년십일월경 소관서에 체포하라는 눈치를알고 상인천역화물 출하하는문으로 잠입하야의원이보면 운송점인부 모양으로가식하야 승차한후 열등포역들지점에서는 변소등에 숨어잇다가다시승차하고 중간역마다 절도를감행하며부산까지가서가또다시동일한수단으로 부산에서 인천까지무전여행으로 와서화 물창고에숨어다나오다가 전긔와가티 체포되엿다는데 범죄건수가 수십건에달한다하며 근래에드믄 흉미잇는절도이엿다한다

廢川된新昌川河床 百餘町步는어데로
一部利權家의弄絡은不當타고 五百餘緣故者陳情

【咸興】 선조전래로경작하여오든 진정인은 북청군양천면중리(北靑郡楊川面中里)류래관(劉泰觀)등 연명하여가든 량천읍으로가 마의대홍수로인하여 일조에 양양안대하로변하여 이래오십여년동안 이천여호주민의 대부분이 홍중의 길로 호구지책을 위하야 전전하게되엿는데 금번이상민들의 진정서에 의하면 신창천의 하상은 남대천(南大川)이 범람케되지 못하야 발서부터 그토지는 일조에하천으로 변하여 이래 신창천(新昌川)이라고 명칭하든것이 하상이 놉하지고 새하천이되여 남대천의하천수가 인수관개하든 전토지의 대부분이 다시금 하천변으로 떨어지자 유력한리권가들의 약심의 대상이되고 독점당하게되며 무고히남의토지임을 알면서도 관계주민 오백삼십구인 련서로 일천삼십여평의 토지가 물고 ... 진정서를제출한사실이 잇다 동안살다못하야 각지에 리산케되엿든바 다행히 소화삼년도대홍수로인하야 전긔신창천은 다시남천의불류와합하여 신창천의하상은돕게되여 체천상태에 이르럿든 바 진정인들은 아무리유도업시 경작지전부를 상실케되므로 당국의공평한지 휘를 바란다는 것이라고한다

耶蘇敎堂新築 自進寄附遝至

【楚山】 평북초산군읍 야소교당(楚山耶蘇敎堂)은 지금으로부터 이십수년전에 건축한건물로고 대식이엿슴으로 이를 신축하기위하야 ...

北國에봄、消息 解氷、初雨모다 例年보다일러

鴨江解氷

【義州】 압록강얼음은 이십팔일에는 각처에 오는내지 일적후는 작동에큰지위가 한번도잇서리기시작하야지난 근변에 드물게보는 원산지방의괴 ... 신의주경찰서에서는 강의어름도 불원간 이에 의하면 압록강으로부터의보도에 의하면 강의어름은 전연두절되엿다는데 례년보다는 약십여일이일르다고한다

元山에初雨 【元山】

외상수가출하여서 인마의 교통은 전연두절되엿다는데 례년보다일은 약십여일이 일르다고한다

楚山에도初雨

【楚山】 평북초산지방에는 지난이십륙일 하오팔시경에 비가나리엿는데 작년보다일주일동안이나 이르게비가내리엿다고한다 보지못하고 오는날을계수하다가 이월이십팔일 오전팔시 심상훈부터 약이십분동안 사이비의 뜨거운서기는듯비가 금번처음으로 나리엇다 이제는보리싹으로 원산에도봄이온모양이라고한다

三千浦漁組 總代會經過

【三千浦】 경남삼천포어업조합제十回通常總代會는 지난이십사일오전 십시부터 회의실에서 정열한이래 한화위기수원선(鎭田)군기씨 무산(武山)량씨의립석하에 리어서 여섯명출석하야 조합장김(金)씨의 개회사로개최하엿는데 이어서신년도사업계획의안에 드리가 종래조합원의 어획물공선 포수산자회사(水產會社)와 계약하야의탁판매(委託販賣)하도록 되엿는바 이계약이 금년 십이월말에 만긔임에따라 조합에서직접경영하도록하고 따라서어구(漁具)등을 공동구입하야 어구종비에 배급하야 어업자들의 리익을 증진하리라는등 가장중요한의안을가결하고오후 사시경에(無事)히폐회하엿는데개선된리사는다음과가트다고한다(三千浦西里)十二票 木下忠次郎 浦仙鶴里 九票 鄭海五票

五十四圓式李蘭伯 李在德 三十錢大錫 金鳳鉉 林鎭一 二十一圓式金承俊 李敏俊 十五圓式金大鎭 朴京煥 二十圓金永昌 崔俊來 十圓式金永淑 金炳淑 金大憲 尹鍋 鄭永萬 崔炳浩 張俊琪 李興彩 李永晧 李興錫 金永奎 金世根 李興國 崔昌周 五圓式 安琰率 李鳳信 高用鍾 金貞明 朴載河 金明祚 金壽昌 金鎭 二圓金昌珍 二圓金承坤 二十圓式金承洛 金志澈 自圓金 十圓式金愛熙 鄭錫銘 百五

名과 금액은 아래와가티한다 현장에서 긔부금을 출한 인사의씨 족에서 출선하야긔부하야 준것을 인보든물은 참석군범동(普通)유지 야 긔부금을 가출하얏든데 초산교 이십륙일밤에 유지제씨가 자진하 바 저간대사경회를 긔회삼아지난 하야 명해를격하야 현안중이엿든 일반은 더욱감사히 생각하다는바 이라고한다

食刀强盜嫌疑로 青年一名檢擧

【濟州】 강도가출몰한다는보고를 바든 제주도경찰서에서는 일주일전부터 판동(板東)사법계 주임지형사등이 변장하고 구좌면세화리 방면에 출장하야 청년일명을인동하여와다 지난이월십오일밤 두지경에 구좌면평대리(坪岱里)김형삼(金永三)(二七)이란부호의로 파깁에 약한자가리되는 식도와 전등을 가진 복면한괴청년이 나타나서도 파를 위협하며금품을 강요하다가노파의 고함소리에 집안사람들이 이러나는것을보고 칼을 버렸다 이와가튼 강도사건은 제주도에는 실로 몃해에처음잇는일로 사방으로 수사한 결과 동면동리에 거주하는 송영직(宋英稷)(二三)이란자로 그와가튼것이 집히되엿다고한다

方地人事

▲李英浩氏(漢銀大田支店長代理) 新任人事次本社大田支局來訪

▲牛島正太氏(鐵原警察署長) 新任人事次本報鐵原支局來訪

반갑지안은生產擴大!
"前科咸南"은얼마나되는가?
九年分五百八十三名을加하면 累計六千九百의多數

【咸興】 해마다 늘어가는것은 빈궁민과 전과자밧게업는 형편이니 작년도 한남도에서 새로전과자라는 나인(烙印)을 찍게된사람은실로 본내지인 이십이명 조선인오백팔십삼명으로 작년도만 현재록천구백삼십명이 나되는데 그중 조선사람이 륙천칠백팔십삼명이나된다 이 비여두고도 더수용할수업다하야 일반면민은 작년에한편감옥실고 인데 한무당국에서도 하로밧버화성회를 조직하고 맹활동을하는중 금을 중설하여주기를 일반면민은 갈망한다고한다

座商跋扈牽制策
全州製紙商會를組織

【全州】 지난이십팔일에전주로종정간납대(老松町諫納臺)에잇는거연정(居然亭)에서는 군내 제지생산업자、製紙生產業者)삼십여명이 모혀지업상회(紙業商會)를조직하엿다는데 본상회의사업은 종래지생산업자들은 지물을 전주에잇는각좌상(座商)들상대로판매하여왓는바 각지소(紙所)에서 다수한 물품을제조하야 시장에 가지고오는때에는 본시한정이 잇는좌상들은물건이 너머만흠으로 시가에멧할김하고 시세를시정하여 노홍으로큰자본을 가지지못한 각생산자들은 헐한시세인줄을 알면서라도 한다 그대로팔게되야와슴으로이에유감으로생각한 각생산업자들은 전긔와가튼 상회를조직하고 지물의시가는절대로 대세를쫏차팔되 상품이만히밀린다고 상인측에서 마음대로호가하는일이 업도록 하자는 방지책인데 만일상인측에서 시세에저렴한호가를 한다하면 즉시전긔상회에 상품을맛기고 일보를 전(日步六錢)의금리로융통시키게되여정당한시세를맛나야팔기로되엿스며전주각좌상이구입치안는다하면즉시 본상회에서경성이나 평양방면에판로를열고즉시거래하리라한다

"舍音費捻出策의 東拓農事改良組合"
會社일군總代費를누가내여!
小作人側反對猛燃

【淸道】 지난이십팔일오후한시경동척회사(東拓會社)에서는동척소작인농사개량조합 (東拓小作人農事改良組合)창립총회를열고 규약을통과하든중총대(總代)의보수문제에드리가 소작인측으로부터 총대의보수는 회사가지출하라! 빈궁한소작인의주머니로는돈을낼수업다고 강경히주장하야 회사측의반성을요구하엿스나 동척은 긋긋내불응함으로 이농사개량조합 이란설치된목적이 회사의일을 보는총대수금따위을목적이아니냐고화살든저 장내를 긴장케하엿든데종래사음의수입이되던게비(契費)중수는 금번에잇서서 불가능하게되엿스므로 다시조합비를 징수하야그로서 총대의보수를 준다는그것은 우십원상이전의게비두세(斗稅)사음료와다름업는것이라고일반소작인의 물의가자자하다고 한다

【楚山】 ... 폐천이되고 다시금석입의 욕로도독점당하게되며 ...

十六미리通信

邑議員被選戰 【全州】

래오월이십일을긔하야 읍면의원개선을 압헤두고 발서부터전주에서는 각방면으로 잠행하얏약운동이잇는모양인데 입후보의 물망에오르내리고잇는 그들을보다면 다음과갓다 印昌植、林澤龍、柳直榮、金昌熙、申時敏、柳重鎭、宋柱商、趙南石、趙剛熙、崔鍾燦、曹東改、白南赫、李範珹

平北郡守會議 【新義州】

평북도청에서는 이십칠일 오전열시부터 농산、어촌(農、山、漁村)의진개년 진흥책을 중심으로도관내부윤 군수회의를 개최하얏다한다

荷物車에引火 【安溪】

지난이십오일 오전네시경에 의성군안계시장에 거주하는김지옥(金芝雲)상점에서는 경주재실호화물차에서 발화하여 일시는대소동을 이르켯는데 원인은 김지옥이란자가 서양물품 화물을 무를보러다가 인화하여 그와가티 발화하엿는데 손해액은 이백여원이라고한다

產組書記被捻 【南海】

경남남해산업조합서긔 로모(盧某)(二七)는 땅내부윤 군수회의를 개최하얏다한다

中腐夜學盛況 【咸安】

경남함안군 가야면광정리(伽倻面廣井里)에잇는중앙야학교(中腐夜學校)는 지금으로부터칠년전에서 각자 리병웅(李東允)씨가 설립한 이래 긴지역에 개인으로 꾸준한발전을하여 오든중 칠년동안을 두고 무보수로 전심력을 경주하고잇든 리병윤(李秉允)리병혼(李秉勳)전홍긔(全弘祺)삼교사에대한일반의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職業課成績良好 【洪城】

홍성군당국면공립보통학교는 수업전부터 직업과가잇서서 성적이 량호하다는바 교수시간이

學級增設要望 【求禮】

구례군 산동면 원촌공립보통학교(求禮郡山洞面院村公立普通學校)에는 금년도입학지원자가 무려이백명에달하야 교실은 한간비여노코도 수용할수업다하야 겨우이십명 입학시키기로되엿다는데 남어지 미취학아동은 배움길이업서가두에서 헤매이고 잇는형편이라고한다 동교는 아직까지 륙학년복식학급으로나누어 교수하기때문에 교실

四歲幼兒溺死 【一山】

양군주면 일산리 리원복(李元福)의장자 리영옥(李永玉)(四)은지난이십팔일 오후세시경에 집을나간지오래되여도도라오지안이함으로 가족일동이 총출동하야 수사하든중동리우물에서 발견하고 죽시끄내엿스나 무참하게도 절명되엿다고한다

【淸道】 ... 인의 물의가자자하다고 한다

江景邑長候補 【江景】

강경읍장문제로 물의가잇다한은긔보하엿거니와 그후도당국에 일임하야 적재를물색하든바 전강경서장이오 현재강계경찰서장 천판웅좌위문(江界警察署長千坂雄左衛門)씨를추천내정되엿다는 소식이잇서서 일반읍민은 지방에다년재직한관계와 사정을리해하는 인사라하야 자못호평이라고 한다

외에 한시간동안을 남학생은삼학년이상으로부터 륙학년까지 가만이와 상품초리(草履)들을 맨들고 오록년 녀학생들은양잠개량(蠶改良)매명당매일 한개식제작하고 쓰레빠등을 맨들어군청으로 보내여 매즉에오전식 요금을수취하여 수업료를 보충하고저금을 한다는바 성적이량호하다고 한다

平北農會總會 【新州】

평북농회총회는 지난이십륙일 오후한시부터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엿다 이보다먼저 이날오전열시부터 평의원회를 열고 총회에제출하야 총회에서가결하얏는데 예산총액은 삼만칠천구백이십오원으로 전년보다일만팔천칠백팔십원의감소이다 그감소된리유는 비료배합사업(肥料配合事業)을특별회계의 경비로하게된때문이라고한다

소화십년도에 실시되는 평북도내의금늑조합사무소는 녕변(寧邊) 고읍(古邑)별하리(別河里)신의주신의베곳인데 이가운데 신의주는현재사무소가 협착하야 지금까지여러차례 신축할의론을 거듭한결과 인데 래년도에 드디어 실현키로 결정되엿다한다

四處金組新築 【新義州】

堂叔家에放火코 二歲乳兒까지毒殺
貧困을不顧한다는怨恨으로
愚昧한鄭戌順의罪狀

【大田】 생활이풍부하게사는시당숙이가난한 당질의집에 조금도보조하야주지아니함에 분개하야 당숙의집에 불을노와전소케하고 그래도부족하다고 당숙의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독약을먹여 죽이엿다는 잔인무도한녀자가잇다 론산군진면해조리 (論山郡津面海造里)에사는 정술순(鄭戌順)(三七)은 의하면 그는 이름을 살아오든터이나 한동리에사는 그의시당숙박별두(朴別斗)는넉넉히 살면서도 조금도도와주지 안흘뿐아니라 혹시밥술이나 어더먹으려가면 구박이자심함에 분개하야 지난달삼십일밤에 박별두의집에 불을노와 밥의집을모조리 태워버리고나서도 아직분이풀니지 안어서 지난이십일 오후륙시경 박별두의 외아들 칠성(七星)(二)을 별두의어미되는 윤씨(尹氏)가업고 잇는데 출연이정숙이가 덤벼드러 어린칠성의귀를잡아당기고 입에다가독약(무슨약인지판명치아니햇음)을 쏘나 어 어린칠성은 맛츰내방열시경에 절명되얏다 이급보를 접한당지경찰서에서는 즉시 정술순을검거인치하고 방화살인이라는 무서운죄명으로방금취조중이라고한다

無錢取食無賴漢 仁川署에檢擧

【仁川】 작당하야 돈업시술먹고 작부를 란타혼도케한 무뢰한==평양부신창리(新昌里)팔십팔번지김태현(金泰鉉)의장남김천덕 (金天德)(二二)은일마전에무단 출가하야 각처로 류랑하야다니다가 인천으로와서 잇든중 지난이십칠일오후 이시경 동료사오명과 작당하야시내류정(柳町)이번지홍순척 (洪淳)의음식점에이르러 돈업시다액의주식을먹고 작부를 구타 부상케하는 난폭한 행동을 하엿스므로 소관서에서 검거하얏다 하는바이라한다

宣川基靑定總 【宣川】

지난이월이십팔일하오팔시부터선천읍내 녀자청년회관내에서 선천긔독청년회 제십륙회 정기총회를회장 주현측(朱賢則)씨 사회로 개회하고 재정보고와 감부보고가 끗난후 삼십오년도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아래와가티 임원을개선하얏스며 신사건토의로서 러합청년회 총무신흥우(申興雨)씨의 사임건에 대하야 토의한바잇섯고 동열한시경에 폐회하얏다한다

會長 朱賢則 副會長 金炳興
理事 朱賢則 張利郁 張愛敬 金鼎完 文興善 金致濟 白永緯 吳湧殷 金志一 金炳興 康日鉉 鮮于讚

學齡兒童入學率 五分一에不過
全州邑初等校入學狀況

【全州】 초등학교입학긔가됨에따라자 전주읍호적계에는 계원이눈코 뜰사이 업시 분주할만큼 동정등본 하부원을 접수하고 잇다 자녀의입학을 위하야 등본접수는하엿스나 참으로 입학이될는지 못될는지하며마음을 조리고잇는 학령아동을 가지고잇는 전주의읍민!

순조선인 인구만이 삼만삼천칠백여명으로 만억삼살부터 열한살까지의 학령아동을 본다면남자가 이천오백팔십팔명 녀자가 이천구백여 일백구십이명 여자가 일천구백사십팔명을보면 관립으로 보통학교의학령아동은 매년반수가되고 하드래도 남어지전여아동은 학교입학을 목적하리라하니 방임시내에잇는초등학교수를본다면 (고등지까지넉어서)륙개소밧게안되는데전부교육에서 학교입학을 해마다 모집인원을 조사하여보면 실로 일천삼백여명밧게는아니되는 형편이라 한편에서는 오분의 일 밧게 수용하지못하는 폐해가잇다하니 이얼마나기염은 일이냐 매년령아동의 목불인견의 울분을보는 국에서는 학교입학자의 증수를 결의하지 그만큼 수용을 모다 수용되지 못하고 ... 결국에는 모집인원의 정원보다 학령아동 모다 사면그중에서도 남자보다 녀자교육의 불환함으로 학력으로 본다면 알수잇스나

- ▲第一公立普校 百四十名
- ▲第二公立普校 百四十名
- ▲新興普校 六十名
- ▲紀全女校 六十名
- ▲海星學校 百六十名
- ▲女子普校 百四十名
- ▲... 百二十名

우운제에잇서서 크게 긔심할바이다 녀자교육기관으로는 다못녀자보통학교와 긔전녀학교밧게 업스니이곳에 수용될아동은 이백명밧게안되니 녀자학령아동 일천구백여명중에 이백명의 입학생을 넘나 하면도 남어지 일천칠백명아동은장차어지될는지 식자의 우려할바러지안타 이에금춘입학긔에 모집인원수를학교별로보면다음과갓다

普林增築費로 五百圓또喜捨
文泰洙氏美擧

【興南】 함남함주군운남면본궁리에잇는문태수(文泰洙)씨는당지에 보통학교 보통학교에일만원을혼자부담 녀자고등보통학교에일만원을 부담하엿스며금번 또다시 보림보통학교가예산부족으로 증축을못하다는것을 알고 오백원을 도로히긔부하엿다하야 그의기부행위는다시금 일반의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工費二百萬圓의 炭素工場着工

【興南】 흥남질소비료주식회사에서는 총공비이백오십만원을 드려 탄소(炭素)공장을 신설케되엿든데 발서 일찰수속이 완성되야 수일내로 착공한다는바 금년내로 화약공장 대두박공장등에 착수하게되여 흥남일대는흥성하여지리라고한다

"龜"字는野望이라고 龜昌學院에廢鎖令
學院名에일홈자를왜너어
"道昌"으로還元하라!

【寧邊】 김화군서면도창리 (金化郡西面道昌里)에잇는구창학원(龜昌學院)은소화삼년이월에 창립되여 이래 만흔영재를 길러내인동면에 잇서 유일한 학원인바 동면이라 웰이일부당국으로부터 허가가 업다하야 폐쇄처분을 나리고이미사개월을 지내도록 아모런당국의 조처가업다하든바 이제동면원서는 총공비이백오십만원을 드려에 폐쇄령을 나리우는 것는바에 의하면 동학원이과거에는 도창서당(道昌書堂)이라하고당국에허가를 어덧는데현재학원장박구로(朴龜魯)씨가중년에와서 자긔일홈자중귀자(龜字)를너어귀창학원이라 변경하여는바 당국에서는 학원장의야망이 패쌈다하야 그가티폐쇄한것이라는데 당국에서는 송전대로 도창서당으로 복구하라는것이라는바 학원관계자들은 하로밧비도창서당으로 복구되기를 긔대하는바이라한다

クボタの…… ディーゼル機関 石油發動機
日英米獨佛伊 特許ア・クロ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文獻進呈)
合資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北・札幌・八幡

レコード 蓄音器 樂器
カタログ進呈
卸問屋 名古屋西區伏見町三 菊谷商店
電話本局三四五四番 振替名古屋一三五八一番

政府許可 六方醫法器 絕對療法
○神妙한療法으로서目下白熱的好評他에絕對無類
○一指觸處에 직칠함을느기고손바닥이六大刺戟을放射
世界的發明에레덴溫熱其他六大刺戟을强弱自在로放射하게하면暴漢防止도되고더구나外面에서보면조금도몰으는奇妙한鑑器이옥從來의各種療法에應用하면또超絕的效力이잇다助時구리도되고收益多大로서將來益益有望
또無試驗開業됨(內容說明書無代進呈)
名古屋市東區森下町四八 電話東六三三七 醫聖閣

染料 原料
信用 卸商 本位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檢定染料取扱店
大壯洋行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市場入口側) 電話本局二三四二七番 振替京城一二〇六八番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肉科 チストマ 토질 十二指腸虫 채독 科專門
京城金弘瑨內科醫院
總督府前 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貳貳番

十八金代用側・十八金代用側
萬人好景品ニ付 西瑞西製
滿洲事變當時 某外國人商館에서投賣 返分品을引受하야 數年간 賣出記念으로 今般에 一個式 提供하오니 諸位는 至急 注文하시옵 團體로 一時試用 提供 十個以上注文에는 一個를 無代進呈 先金!
●十八金代用金側 瑞西製十六形十五石入アンクル 市價二十五圓品以上
堂堂市價四分之一
特價六圓七拾錢 クサリメタルサック付
腕卷 瑞西製九型 十八金代用側 十五石入アンクル 市價二十五圓以上品 特價金七圓也
クローム側十五石入アンクル市價二十圓以上品 特價金六圓也
先金注文에는 一切送料無料 送金은 第一 安全한 振替로
クローム側十六形十五石入アンクル 市價二十圓以上品 特價五圓也 クサリメタルサック付
十個年保險品 (帕來腕皮付)
東亞公司時計部 新義州府雲井町九丁目 振替京城二二六五五八番

桃花劇場 麻浦桃花洞 電話 三三
勇敢한靑年! 果然어떤 한感想을줄는지 ...보시라
三月三日낫부터特別大興行
料金 階上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小人十錢
土曜日과日曜日와祭祝日은 晝夜二回公開합니다
◇大都社特作映畫現代劇 深夜부터새벽까지 全六卷 監督…吉村 操氏 主演…南部章三氏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活劇 아리쏘나 全八卷 監督…쫓지 빼사잇氏 主演…로라라 프렌트氏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活劇 怪盜少年團 全八卷 監督…쫓지 빼사잇氏 主演…벡 다바이론氏
暗黑街에서꽝크團과相對로싸우는

第一劇場 電話光二一三 壽町五丁目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均一
二月二十八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特選大作品番週間 日曜、祝日、祭日은晝夜三回興行 始映時間十二時・三時半・七時半
◇新興키네마社提供 社會人情劇 若ちゃんよさらば 全七卷 監督 大森 勝氏 主演 松本泰輔氏 金澤美都子孃
天眞스런운어린이ー주린배를채우기為하야罪惡을犯하는浮浪人
◇컬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人情劇 奇蹟의處女 全九卷 監督 푸랑크 카프라氏 主演 바ー바라 스탠윅孃 데비ㅅ트 마ー나스氏
數奇한運命의世界를向하야純潔한女子가貞操의 犧牲으로써 現代의 ...
◇파라마운트社超特作無發聲版 社會人情活劇 暗黑街 全八卷 監督 조세푸 스턴뻐ー크氏 主演 조ー지 빵크로프트氏
暗黑世界를活躍舞臺로서跳梁하는陰險한人間의特異한生活을描寫한作品!

松の實キャラ

日本內地 農業資本朝鮮進出相

農家總數一萬餘戶
所有地卅九萬町步
三十町步以上地主가近八百戶로 그所有面積廿萬町步

昨年 外地米의 日本內地移出도될미아마 日本內地米는莫大한壓迫을 받게되다하야 日本內地米生產者側에서는 그徹底的統制를 高唱하게되어마츰내米穀自治管理法案이 今議會에提出되게까지 되엇는바 이를따라서 外地側特히 朝鮮에서도그素朋的 統制에對한反對運動을 이르키게되엇다 그런데朝鮮에서는 大地主의大部分이日本內地地主이며 米商品化의一中心인 精米工場의過半이日本內地人에依하야 經營되고잇는現狀임으로 朝鮮米統制에依하야 가장마히그 利益이阻害되는것은 朝鮮農民이아니라 朝鮮農業에投資한 日本內地資本家로 그反對運動도 그들이中心으로 되여잇다는말을 흔히듯게된다

農家戶數

그러면 日本內地人의 朝鮮農家에의進出은 果然 얼마한가는 자못注目되는바로 最近의計數는알수업스나 總督府農林局調査昭和七年末現在의統計에依하면 朝鮮內의日本內地人農業者戶數는 一萬一千二百十四戶인데 그分布狀況은 慶南의二千三十二戶가首位이며 全南의千八百六十一戶 全北의千六百六十二戶 京畿의千二百二十九戶 慶北의千二百二十二戶의順位로 全朝鮮各道에亘하야分布되여잇는바 比較的南朝鮮에만코 北朝鮮에적다

所有地關係

그리고所有地의關係에對하야 보면 地主五千五百十六戶 (四割九分二厘)自作農 二千六百八十三戶(二割三分九厘)自作兼小作農千七百三戶(一割五分二厘) 小作農千三百十二戶 (一割一分七厘)으로 農家戶數의 約半數는 地主이다

所有地面積

다음에 그所有地面積을보면 畓은二十六萬四千七百四十町步로 全朝鮮畓總面積의 一割六分、田은十二萬八千七百九十四町步로 全朝鮮田總面積의五分를 日本內地人이所有하고잇다 이를道別로보면 畓에잇서서는 全北의六萬六百六十六町步(三割五分)를首位로 全南의五萬四千四百十九町步(二割六分)가그다음이고 咸北의九百二十七町步가最下位이며 田에잇서서는 全南의二萬五百五十三町步(一割)를首位로 黃海一萬九千百六十八町步(五分)가그다음이고 平北의二千四百二十五町步(一分弱)가最下位이다 이比率은 道別田畓面積의그總面積에對한比率은 畓에잇서서는拓殖內의數字와그順位가 가트나田에잇서서는 全北의一割八分을首位로 忠南의一割二分이이에다음가고平北의 入厘가最下位이다

大地主層

또所有地 三十町步以上의日本內地人大地主에 對하야調査한것을보면 昭和五年末現在에 잇서서 總戶數는 七百七十九戶(朝鮮調査는 八百七十戶로그中百十四戶는 道外居住地主 所謂不在地主이다)로 이所有面積은 畓十四萬五千九百町步이고田七萬八百四十町步 計二十一萬六千七百四町步이다 그리고이를道別로보면 右地主가 가장만흔道는全南의百八十六戶가 그다음이고 全北의百三十四戶、慶南의百十六戶가 그다음이고 가장적은道는忠北의十八戶이다 또所有面積別로보면 三十町步以上五十町步까지二百九十七戶 五十町步以上百町步까지 百七十七戶 百町步以上三百町步까지 百九十九戶、三百町步以上五百町步까지 四十九戶、五百町步以上千町步까지 二十七戶 千町步以上三十七戶이다 以上으로보건대 日本內地人所有耕地中에도 田畓을勿論하고 그半數以上은 少數의大地主가 所有하고잇다

米穀自治管理의
朝鮮實施準備決定
調査員二萬五千名에達하는
米穀調査機關大擴張

米穀自治管理實施의 豫想에伴하야 朝鮮總督府에서도 米穀部를 新設하고 米穀生產高調査 移動米의 調査와 現在高調査를하야 朝鮮의米穀實情을 明確케하기 爲하야 그統計를作成키로되엇는데 그調査機關으로는 直接調査에 常習調査員으로 全朝鮮에 生產高調査員二萬名 現在高調査四千名 移動米調査員千名 合約二萬五千名의 調査員을 配置하야 精密한調査를 베풀기로돼엇다 그러고 調査員二萬五千名의 配置에關한 經費는 各道에補助金으로 交付하고 道에서 調査員을 委託할豫定이라고한다

日蘭海運會商
畢竟에決裂
蘭船側幹部歸國

【聯通東京電話】日蘭海運神戶會商은蘭船側의新提案『用語는日英蘭三國語를 使用하고 疑義가생길境遇에는 英語에依할일』에對하야 日本船側은 二日 午前十時 짜바차이나汽船特別室에서蘭船側代表를訪問하고 日本案說明하야 蘭船側의考慮를 促하엿든바 蘭船側은 이에應할수업슴으로 遺憾이지만 折衝을中止하겟다고 말하엿다 그래서 蘭船側幹部는 三日 神戶發關國케되야 곳日本側關係者에게 作別의人事를하라고 도라댕겻다고한다

米日爲替暴落

【京城一日發輸合】今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賣二十八弗二十四仙으로九仙低 買二十八弗二十一仙으로九仙低

▲東京爲替(二日)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一 買 二十八弗十六分五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三

▲大阪爲替(二日)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一 買 二十八弗四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入하기로 農林、商工兩省의一日協議에서決定하엿다고한다

滿粟輸入量續減
天津粟輸入續增加도疑問

滿洲粟市價의暴騰으로 米價와의差가 顯著히縮少되야 그輸入이 自然減少하고그代身으로 旣報함과가타 天津粟의輸入을보게된것이다 그러나 天津粟價도 朝鮮으로부터注文이相當함을伴하야 最近에는滿粟과의價差가 매우적게되는대로 그輸入도繼續增加키어렵게되야 朝鮮內의代用食糧上 相當困難을겪기게되는傾向이잇는바 이것은 別項과가튼總督府發表의二月中粟輸入量이前年同期에比하면 顯著히減少한것을보아서도알수잇다고한다

朝鮮代用食糧乏?

滿化硫安輸入
制限範圍外로

【東京電話商通】滿洲化學의全購聯에對한硫安供給은 肥料統制法案에依한 輸入制限의範圍外에두기로決定하고 滿化의肥料業組合加入은 任意加入을認할規定을揷入할 것

米移入減少
◇…二月中總數量

【二日總督府發表】二月中米移出은百六萬七千餘石으로 이것을前年同期에比하면 四萬九千餘石減이나 昨年十一月以後累計는 四百四十七萬二千餘石으로前年同期에比하면 六十四萬六千餘石의增加이다 그러고粟移入은 七萬五千餘石으로 이것을前年同期에 比하면 二萬四千餘石의減少이며 또昨年十一月以後累計보다 三千餘石의減少이다

▲米輸移出高 (玄米換算單位石)

	輸出 今年	輸出 前年	移出 今年	移出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一月中正誤 移出米 [illegible] 誤 [illegible] 正 移入米 [illegible] 移入粟 [illegible]

米商有志大會
七日東京에서開催

東京米取主催의 全國有力米商有志大會는 三月七日 東京米取에서 열고 全國有力米穀關係者가 出席하야 目下의米穀界緊急問題에對한 意見을 交換키로 되엇는데 朝鮮에서는 新山(京城)田中(群山)의 兩氏가 出席할터이라고

三井物產
天粟輸入

滿洲粟의 暴騰으로 日本內地粟의 買氣가喚起하엿다 日本內地粟도買物이업서서 最近天津粟의 買付가되야 主로三井物產과天津의 三昌洋行間에 商談이 成立되고 이미仁川經由로 三車가入荷되엇스며 二日에 다시十車의 入荷가 잇슬터이다 이것은 모두朝鮮取扱으로 그全部를 元山에보내여 主로北朝鮮의 需要에 應할것이라고한다

鰮油販賣의
統制協議會
三菱契約延長問題

【今年滿了의 鰮搾粕對三菱의契約을 明年에도 繼續할與否의件】

【二月十日頃 鰮油販賣統制에對한 今年度의協議가 長谷川町水產會館에서 열기로되바 그協議內容은 主로 알에와가다고한다

統制
過度이면弊害!
不遠에愼重調査研究키로
◇…經濟界에서重視

【東京電話聯合】最近政府의產業政策은 昭和六年 實施되重要產業統制法의運用을 비롯하야이번의議會에上程되米穀管理案、蠶絲處理法案、北鮮漁業取締法案等으로 統制經濟의意圖가 濃厚케되는이때에 日本經濟聯盟首腦部에서는 業者이런傾向을 重要視하든바 纖維業、石油業等의 重要產業部門에 統制가過當히行케되면 問題는더욱惡化할境過가不無할것이며 統制經濟의實情에如何한래에產業統制가產業界의實情에 則치안코 强化된다는것은 產業의健全한發達을 阻害한다는見地上 今後政府의產業政策에關하야 根本的再檢討를 하라는意向이 漸次 有力케되는터인데不遠間特別委員會를設置하야 愼重히調査研究키로되엇다고한다

在滿中國資本
逃避防止講究

【新京電話商通】事變以來日本資本의流入에壓迫되야 滿洲의中國資本이 顯著히消極的으로되야投資事業이 거의撤去하야中國으로逃避하는狀態임으로 中國各地에向하야 發送되는爲替의金高는一千九百萬元에達하고 滿洲國幣制度及一般經濟界의重大危機로그防止策은當面한 重大問題化하는터이라고한다

砂糖關稅의撤廢
菓子業者大會開催

製糖트라스트에對抗하기爲하야 全國菓子業組合聯合會를中心으로 朝鮮菓子業組合聯合會도 參加하고 去二月六日東京에서 結成된糖價引下全國期成同盟會에서는 請願委員二十四名이 大藏、拓務、陸軍、商工、內務關係五省에 糖價引下、關稅撤廢를陳情하는同時에 貴族兩院의政黨各派를 訪問하고 陳情을訴한結果 政黨方面에서는 【全國同業者及國民의請願대가 잇스면 議會의問題로함에形勢이조라는라고하엿슴으로 同盟會에서는 直時全國的으로同業者其他의調印을모으기에 着手하얏는바 朝鮮의同業을代表하야 渡東中이든朝鮮菓子業組合聯合會長 藤貞市氏는이때문에 急遽歸京하야 一日의京城商議金融部會에 運動經過를 報告하는同時에 菓子業組合聯合會의 役員會에도 報告하야 朝鮮側의 陣容을 堅固히하기爲하야 近間同業者의 全朝鮮大會를開한後 三月十日東京國技館에서開催될 糖價引下關稅撤廢에關한全國大會에 出席키로되엿다 大會의 結果目下開催中인議會에請願할터인데 議會는이미終了에臨박하고잇슴을 바라보아 마지막 努力을기울이기로하엿다 議會도 終了하고업마안남엇슴으로 今議會에目的을貫徹이 不可能한境過에는 來議會에問題가될것으로持久戰에入할計劃이라는바 右에關하야藤貞市氏는 如左히말하얏다

一讀者의見地로 貫意를 表明하고잇고 大藏省도消費稅의 立場으로 努力할 旨를 言明하얏스며 責任當局인 商工省도引下의妥當性을認하고 拓務省도 調査研究하리라함으로 今議會에맛지안으면 持久戰에入하게될것이다 商工省의糖田產業合理局長은어느程度引下하면조코나 못가에今日에잇서는 糖價引下보다도 참아리根本인關稅撤廢를急務로한다는言責을하고製糖트라스트의 生產費를擁護하고 陳情하얏다 云云

東新百五十圓

二月十二日東京短期東新百三十二圓五十錢에서 方向을轉換하야一路上進되든市勢가 百五十圓을出現키에면저 百四十五圓中心으로相當한期間鍊鑛을 거듭하고五圓가량의下押이잇서야하리라 보던터에昨前場新甫에 低弛이엇슴으로日前持合이 豫想되엇슴에反하야昨後場에 乍漸然이 新高價인百四十八圓丁(當地百四十八圓十錢)에올르든后이어 今前場에는百五十圓의 大關門을一氣突破하야百五十一圓四十錢 (當地百五十一圓二十錢) 에뛰어二月十二日低價에서十八圓九十錢의 棒上이고昨年八月의高價百五十一圓五十錢을겨우十錢남기어슴뿐이엇다 百五十圓은關門이라마는 休日後가果然如何할지重視되는터인데人氣가熱狂키시작한마큼그대로갈때로가

後場休會

大阪短期配가 大新、日產은不標 鐘新 東新各二十錢低이엇슴으로當地氣配로 大體不變이고休日後를重視하얏다

商況(二日)

今日財界(二日)

◆米 (單位錢)

	今日止	先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三三高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三高
㉢三等米 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白米 一石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收良	[illegible]	不變
一斤價 在米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一匁賣)

金	十二圓七錢五厘
銀	二十二錢五厘

◆株 (單位圓)

	今日止	先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今日止	先前日
大阪棉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illegible]

經濟界消息

▲京城商議役員會=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二日午後二時早日役員會를열고알에와가튼 事項을協議할터이라고

一、滿洲金融의 政府件
一、砂糖關稅撤廢에關한件
一、其他

▲東洋市場實況米國實業團=【東京電話聯合】日本、中國及比律賓의東洋市場視察의目的으로 米國經濟調査團長은 二十四日 米國實業家가 參加人員은 約二十名 오는 四月五日橫濱着의 도레시테號로渡來하야 東京、大阪外各都市에서 實業家와懇談하고 各地의商工業狀況을 視察한後 四月十九日에 日本을떠나 中國方面으로 向할豫定이라고

株式
熱狂的큰市勢
諸株各大關門突破

▣前場爆發 昨後場東新이도新高價로올른데뒤이어 今前場은 日產提携具體化好感、倫敦金塊暴騰等으로 買氣白熱化하야 新規買가殺到하야 東新百五十圓、日產百圓의大關門을 一氣突破하는活況으로 利喰을消化하면서 熱狂的市勢를演하다가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三圓十錢高인百五十一圓二十錢 日產四圓三十錢高인九十五圓丁 大新二圓三十錢高인二十八圓九十錢 朝新四十錢高인六十四圓丁에 各大引되고 鐘新百二十九圓八十錢 拓新九圓七十錢이엇다

▲朝新 | [illegible]
▲大新 | [illegible]
▲東新 | [illegible]
▲日產 | [illegible]

日產百圓突破

二月十八日東京短期日產九十圓十錢에까지 떠러저九十圓만케어지면 八十圓七十圓六十圓으로奔落될이엇스나 그러나當時强氣를論하는者업는程度의極度悲化되엇스나 그래도머리가묵어잇더니 今前場은倫敦金塊의七錢五志一片이라는大暴騰을듯고買氣一氣로突破하고爆發하야百圓關門을百二圓九十錢 (當地百三圓三十錢)에 熱狂的上進을演하야 二月十八日 低價에서十二圓八十錢의棒上이엇다 東新十八圓九十錢高에 比하야 遜色이엇지만코나 今前的으로 好轉熱狂의 第一步를 밟기시작한 日產이 今後는 決立勝하게될 收手戰이요 東亞至此하면 日產獨特의 金高와相俟하야 相當한活躍이 期待되기도하야한다

朝取新舊와鍾新

東新日產低에遭遇하야 格別한惡材料도업시 二十七圓餘로떠러젓든朝新도 復來依復途程에入하야今前場은二十九圓丁에 反騰되고朝取도六十四圓丁에올랏고 鍾新은大阪는百二十圓關門突破에當地百二十九圓八十錢이엇섯는데 新三十圓回復도 在近할것이오東

日產百圓의 翻高라하야 다시支配한日產의百圓은 決코비싼것이아니라는論도나올것가다.

市場六感

株

東新은買方第一 目標인 百五十圓關門突破 ▲日產도倫敦金塊暴騰에 好感하야 百圓關門突破 ▲今前場은今年初有의 大活躍으로買氣白熱化▲까닭업는 사람도억개바람이낫나▲鋼鍊치안코 그대로뛰어노니 자미업다는등上市勢의辭命이 短하겟다는등缺點을잡어내는사람이 업지안흐모양이나▲買方으로서는 오래동안 儆敗하얏든 雪辱戰이오材料로서日本의 國威發揚을 내세울 月中提携의 進捗이니만콤買方의 自行自之가 緊張되기十常八九 ▲中國의 排日貨

米

▲客月限의 納會될때에는 一段瓦落을 示할뜻하더니 新甫五限의 發會되면서 人氣俄然一轉▲過去一二月이月初高月末低의 迷路를발버온만콤 本月도亦然?▲그

禁止發令하나만 가지고라도東新五十圓高가 맛당하다는 强氣의 氣焰萬丈 ▲日產도切開手術을하고 命脈되여가는판에倫敦金塊新高價의 絕大好材料가잇스니 極度悲觀의反動으로絕對樂觀가妥當하다고 ▲投機本位時代가아니라고 東新十四圓高로써 上市勢終局이라하야輕視하얏든것이 今日의爆騰을招한原因의 有力한것이라할수밧게 ▲大勢好轉을미더두는것이從時俗하는途일뜻

各地正米

京城閑散

休日을압두운今日은期米의保合으로市況不振이오閑散保合이엇다㊂三等二十七圓八十五錢 四等二十七圓六十五錢

仁川同調

定期의不動狀態로 日本內地로부터의入注가 杜切되고 休日을압두는 產地는換金的小口賣物을出하나 移出側의沈黙으로傍觀되어겨우 精米側에消化되어 氣配는 不變인 丸三等二十七圓八十五錢、四等二十七圓五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五錢

釜山堅調

出廻四千叺 月初로 淸算관계로 一息氣强이오 所持側의高價를기대리고國應치안음으로 商談이안되나正租高價에依하야 精米移出側의買進으로 市勢는 穀元錢高인角二三等二十七圓八十錢 四等二十七圓五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八錢

大邱不變

日本內地의 買進에 刺戟되어 產地는 引締이나今朝定期의 釘付로 買傍觀하야市況이 不變唱인 角二三等二十七圓六十錢 四等 二十七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錢

群山一息

廻着二十輛 產地의賣氣로 旺盛치아니하나 値頃觀으로 先約物을善處하는中이오 今朝도繼續하야 阪神으로부터의注文이旺盛하나 淸算의焦付로顯著한相談이업고 市勢는不變唱인㊂三等二十七圓九十五錢 四等二十七圓七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

木浦引締

日本內地入注는多少잇는程度로 依然問題가안되고 常用側의買氣를 煽揚하야市勢는 十錢引締이나 依然貿物薄으로大口取引이업섯다 ㊂三等二十九圓 五十錢 四等二十九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錢

南滿續伸

產地는 依然買物薄과高買생각의實情으로人氣强調 五錢高하야 全然米側의取引이成立되어 새 九ナ三等二十八圓三十五錢 四等二十八圓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

期米
新高價로奔騰

▣前場小强 昨後場阪地三十一圓三十九錢止와共히二十八圓六十九錢에 場合止市場은今朝에 入하야阪地初付三十一圓四十錢인 一丁高를揷하고二十八圓七十錢인 八丁高로場을始한後阪地四十錢의 八節同價도結局四十四錢에止場하얏을뿐作하야七十九錢에 서保合하다가 入九兩節은賣買不成으로八十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續騰

後場은二十八圓七十九錢에一丁低로始場이나二節부터四節까지八十三錢同價 五節八十五錢에續騰이고別欄가티止場하다

又復買氣滋生
月初高月末低?

新甫五限이 發會되면서 買氣又復滋生하야 一段高價를示할뜻한形勢도 今朝阪地三十一圓四十錢의保勢임에도 當地는意外買氣旺盛하야 二十八圓八十錢에前場을終하얏다 大體一月以來의市勢가月初高月末低의 習癖을가지고지내온만큼 本月도過去와가튼經路를 밟을자뭉으나 三月中의米事情은二月과는달을것임으로 不遠한時日에 一携分岐를示할지도亦未知이다 農家의賣出은거의一巡되엿슨즉 市價를壓迫할만한一時的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新規材料가乏하고 雙方氣迷深하야場面은 極度로閑散이오市勢는不動狀態이엇고 岡崎、九州勢

東京國債市場

【聯通東京電話】今朝는株式의一齊高로買氣一段加하고 內債로大幅十錢의續騰을呈하얏스며外債로米貨三、四十錢買進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三、四五
一回四分利	[illegible]
二回四分利	[illegible]
佛貨四分利	一八六、二〇

實物前場取引

實賣高百八十枚 ▲朝鮮電氣 [illegible] ▲大阪電力 [illegible] ▲日本產業新 [illegible] ▲東京電燈 [illegible] ▲東京瓦斯 [illegible] ▲日本石油 [illegible]

政府態度如何
前途需給一考

本年은三十年來의 凶年으로一千萬石의 供給不足을 말하게되다大前의 數字로보아서 勿論誇大視되는바이지마는 政府의所有인 一千萬餘石의發이 拂下되는때에는 足히 從來의需給을 解決할수잇슬것이다 그럼으로 今後政府의 態度如何를 注目하지안흘수 업는바政府의立場에잇서서는 米價가最高公定價格에 接近하는때에는 拂下를하기로 旣히線度를한바잇거니와品價의소리가 撥價하는때에는 公定價格接近如何를不拘하고 拂下하여야할것이다 그러한點으로 보아서는政府責任이決計하지안흘수 업슬것이다 그러나本年의稻作이 又復不良한때에는 明年度供給問題를考慮치안흘수 업슬것임으로政府의態度는 今後의稻作如何로 서 態度를愼重하게될모양이다 그러한關係로 前途需給問題에있서서의樂觀을불하지못할것은 事實이다

朝取期米取組高

	◆賣方	◆買方
	[illegible]	[illegible]

前場新舊限

▲前場은今朝米界의歲月이갈사록 米의事情도도한轉變되는것임으로반드시 月末低를期待하지는못할뜻▲一月은出廻期二月부터는減殺期에向하는初期인마큼 事情이달을모양▲그러나目前의東阪兩地米價는 最高公定價格에達하엿슴으로 買資金을한다는것도疑問▲그러다고 買方針을捨하고凶作의關係로 ▲正租玄米의短貯는 來五月頃에나解除가 完了되리라고한다 此는强材의一助▲그리고 政府의拂下問題는 本年의稻作狀況의 如何에依하야비롯오確定될모양이니 其前에는拂下를 難望▲勿論賣上할 것을하지안코잇는마콤 拂下의 遲延될것이事實

市況 (各表)

◆朝鮮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釜山 大邱 群山 木浦 鎭南浦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神戶 下關 名古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二八八、九六五俵 一八一、七〇七俵增

商品 二日

◆大阪綿絲◆ 三月 四月 五月 六月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東京 大阪 福井 [illegible]
◆橫濱生絲◆ 當限 先限 [illegible]
◆大阪砂糖◆ 當限 先限 [illegible] 現物D格六〇五圓
◆海外砂糖◆ 現物稅 賣買中價 (8T) 一九、八〇錢 紐育 三、四月 五月七 二仙二分一 倫敦 三、四月 四志六片

金融 二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二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二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日本麥粉市勢● ●지카코期麥● ●鰮油沖價● ●鰮搾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二日

◆朝取短期◆ ◆實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長期◆ ◆東京短期販組◆ [illegible]

朝取期米 二日

◆朝取期米◆ 前場 一 [illegible] 九 [illegible]